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개정 노동법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회생을 목적으로한 법이 정반대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지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가 절실하다. 부처님은 일찌기 노동관에 대해 노사 쌍방이 먼저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원칙론이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럴수록 기본적인 마음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경제관 노동관에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푸는 해법을 찾자.

〈편집자 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장자(기업주)는 하인 · 집사(근로자)에게 이랗게 책임을 져야한다. 첫째,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킬 것이며, 둘째는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는 것이며, 셋째는 수고로움을 위로해줄 것이며, 넷째는 병이 났을때 약을 줄 것이며, 다섯째는 휴가를 줄 것 등이다.

〈선생경〉

남종 · 여종(근로자)이 주인(기업주)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섯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일찍 일어나 주인의 부림을 그르치지 않음이요, 둘째는 해야할 일을 마음을 써서 함이요, 셋째는 주인의 재물을 아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않음이요, 넷째는 주인이 출입할 때에 전송하고 영접함이요, 다섯째는 주인의 선한 점을 칭찬하고 그 악을 말하지 않음이다.

〈육방예경〉

주인(기업주)은 세속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종들에게도 주어 그 반만을 제가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저만 차지해 멋대로 입고 먹고 하여 종의 몫은 아껴서 주지 않으며, 설사 준다해도 시기에 맞지 않게 주며, 많이 주어야 할 것을 조금 주어 늘 부족하게 한다면, 이는 세상의 가장 큰 그릇된 행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니건자경〉

가게 주인(기업주)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도 열심히 일한다면 그는 아직 얻지 못한 재물을 얻고 또한 이미 얻은 재물은 불어날 것이다.

〈중일아함경〉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계량기를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면 죄가 된다.

〈우바새계경〉

축적한 재화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써야 하지만 부모님을 공양하고 처자와 친척과 권속을 돌보며 하인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 벗에게 보시하고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공양하라.

〈잡아함경〉

종단마다 대형 건축 불사 15면
황룡사 대종 과연 찾을까 8면
답사기 미리 읽고 떠나자 12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승려 어학학교 세운다

조계종 직지사에 빠르면 내년초 개교
빨리어등 전공 유학승 파견도

스님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특수학교가 설립된다. 이와함께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전공 해외유학장학승 선발 등 외국어교육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14일 새해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제도의 정착'을 올해의 종책목표로 정하는 한편 외국어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유학승 파견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교계도 지난 11일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범국민대회에서 신한국당의 노동법 ·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외국어교육 특수학교로 설립되는 어학학교는 직지사(주지 녹원 · 동국학원 이사장)에 내년초 설치되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강좌를 개설 각 10명의 승려를 엄선, 2~3년의 교육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한다. 어학학교 설립 및 운영주체는 직지사이며, 교육원은 교육법상 특수학교 인정 등의 지원을 담당한다.

교육원 교육부장 향적스님은 "불교의 전문적인 어학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어학학교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고 밝히고 "빠르면 내년초 개교가 가능하다며, 정부에 특수대학원 인가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은 어학학교 설립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직지사 연수원 이양길원장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랩 영상관 등 현대식 시청각시설을 갖춘 교육도량을 직지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은 또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를 전공할 유학승 3~4명을 선발, 3월중에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연구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인도 루나대학으로 유학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원은 이를 위해 올해 1천2백만원의 예산을 책정, 선발된 승려에게는 어학연수기간과 대학원과정의 전기간(5~7년)에 소요되는 수험료와 생활비 일체를 지급한다. 선발대상은 조계종단의 기본교육과정(중앙승가대학, 지방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 이수자에 한정한다.

〈정성운 기자〉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유임
종회의장 · 감사원장도

천태종 전운덕 총무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종회에서 임기 4년의 제 11대 총무원장에 유임됐다.

이와함께 종회의장 덕산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박형철 참의원장 등 4원장이 연임됐다.

천태종의 이번 인사는 3대 종정에 도용스님이 추대된 이후 처음맞는 정기인사로 이번까지 형식적인 인사관행에 그쳐온 천태종이 원장급에 이어 부장급(19일 예정) 주지급(26일 예정) 인사를 대폭단행할 예정이어서 가시적인 종단 운영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노동법 통과절차 잘못됐다"
14일 종단협 간담회서 밝혀…공식입장 논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14일 하림각에서 회장단 및 주요종단 연석간담회를 열고 현시국과 관련 "정부여당의 노동법 안기부법 통과의 절차및 시기 방법이 잘못에서 비롯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곧 종단협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홍파스님은 이와관련 회의가 끝난 후 발표를 통해 "파업시국에 불교계가 침묵해서는 안되며, 이에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와 노동자 모두에게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을 촉구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올가을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대회 한국측 집행위원장에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위촉하고, 위원구성은 집행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진흥회 문제는 '관망대응' 방침을 정했다.

문화유산 전승 역점
문체부 올 사업 발표

내년중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이와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보존전승 사업과 영상사업 등이 역점적으로 추진된다.

김영수 문체부장관은 지난 16일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종교간 화합을 유도하고 국제 종교교류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유적 정비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도 밝혔다.

"노동법 국민요구 외면말라"
13일 조계사서 민주수호 시국법회

반민주악법 저지를 위한 불교비상시국회의(공동의장 청화스님 외 11명)는 지난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민주수호를 위한 시국법회를 봉행했다.

청화(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효림스님을 비롯 스님과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국 법회에서 청화스님은 법어를 통해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들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최후수단으로 불교의 가르침에 비춰 정당하다"며 "정부가 시국수습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물리적 힘의 논리로만 사태를 해결하려한다면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회를 마친 후 민주헌사의 영혼을 달래는 대형 영가등 2개와 소형영가등 1백여개를 들고 조계사 경내를 돌며, 김영삼정권에 대한 참회를 촉구했다. 불교시국비상회의는 노동법 및 안기부법이 철회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조계사에서 시국법회를 열 방침이다.

해천 일지스님 등 인천지역 스님 6명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과 함께 13일 노동법 안기부법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범종교인 1백5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회법를 어기면서까지 안기부법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현정권의 처사는 분민정부임을 포기하고 군사정권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불교비상시국회의 스님들은 지난 15일 명동성당을 방문,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법지부족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현대불교신문 제2회 신행수기 당선작 시상식
■ 일시:1997년 2월 3일(월) 오전10시 ■ 장소: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녹수청산


재질 : 순금 순은(실제크기)
두께 5mm

불자님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미륵대길상 가정호신불

영축산 통도사비구 玉龍子 석지형스님 대길상도



새해 불자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3월 부산일보사 전시관과 5월 서울 잠실롯데월드 특설 전시관에서 玉龍子 석지형 스님 대길상도전이 대한불교 조계종 宗正 月下 大宗師께서 친히 증명 법문하신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 이수성 국무총리, btn불교TV사장 김태웅 스님, 동국 대학교 총장 송석구 박사, BBS불교방송 조해형 사장님등을 비롯한 각계의 여러 지도자와 불자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민적 관심과 성원속에 장엄하게 거행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후 대길상도는 이 땅의 여러 중요한 곳에 작품이 증정되었고 수천여 작품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소장하였습니다. 이 땅에 크나큰 길상의 힘을 전한 길상도 가운데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용화세계를 표현한 미륵부처님 대길상도는 그중의 대표작이었습니다. 뒤이어 여러 불자님께서 미륵부처님 길상도를 전하여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길상도전 이후 한해동안 매주 한 번씩 수십회에 걸쳐 수만여명의 불자님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한 원력에 힘 입어 순금과 순은으로 소중하게 불자님 가정을 위한 미륵대길상 호신불을 조성하여 법계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미륵대길상 호신불을 인연 맺는 불자님 가정을 위하여 3천일 기도를 지극 정성 봉행하고 축원하여 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정성다하여 조성하고 여법히 기도점안올린 호신불이 불자님 가정과 곳곳에 전하여져 인연불자님 신심증장되고 큰소원 이루시며 모든 중생 구경성불 불국정토 이루어 지이다

= 우주법계를 축약한 고귀한 찰학 =

부처님께 올리는 큰 원력과 정성으로 조성된 이 호신불은 위로부터 하늘과 밝음을 상징하는 태양 , 상서로운 구름, 새, 중심에는 부처님, 땅과 삼라만상을 의미하는 산, 나무, 탑, 석등, 맹아래는 물을 상징하는 거북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우주적 의미와 완성된 부처님 세계의 가운이 생동합니다.

= 대길상 호신불에 깃든 상징과 의미 =

부처님 모든 중생의 성불, 불국정토완성, 불지와 가정을 지켜주심
태 양 성불의 빛, 지혜, 희망, 완성, 명예
새 자유, 해탈, 행운, 기쁜소식
구름 안개 부처님의 상서로운 기운, 우담바라 향기
나 무 용화수, 지혜, 진리, 우주나무
산 산의 다섯 봉우리는 예로부터 최고의 귀함과 높음과 길상을 의미함. 또한 우주의 넘치는 생명의 기운이 다섯 봉우리를 타고 끊임없이 호신불에 들어오는 의미가 있음. 미륵의 땅
탑 완성, 안정, 대성취
석 등 지혜, 희망, 빛, 참마음, 진리
거 북 모든질리의 경전을 등에 지고 있음. 장수, 인내, 부귀, 길상

= 미륵 대길상 호신불을 전하여 받는 곳 =

가정, 사무실, 사업장, 자녀공부방, 병실, 정진처

• 해외의 인연 불자에게도 전합니다.
• 미륵 대길상 호신불을 수지하고 마음을 열어 일념으로 기원하고 정진 하십시오. 대성취 대길상의 부처님 세계가 열려옵니다.

© 미륵 대길상 호신불은 순은과 순금으로 정성다해 조성한 대성보입니다. 자손대대로 전하고 물려줄 가보이오니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3천일 기도 축원 : 3천일 특별용맹정진 기도에 설판축원 동참하시는 불자님께 법공양으로 전하여 드립니다

포교 · 복지 · 장학 · 교육불사도량
문의 대한불교 조계종 소림정사 · 소림불교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 (02)511-6210~5, FAX : 511-6216

사 설

경승단 10년 재발심하자

대한불교경승단 발족 10년. 조계종은 1월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승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민중의 지팡이인 전 경찰의 정신적 도반이 되고 치안유지의 보이지 않는 힘이 되기 위해 10년전 경찰의 날인 12월10일을 경승의 날로 정한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서일 것이다.

처음 경승단이 발족될 당시 전 불교계는 대단한 기대를 가졌고, 치안본부를 비롯한 각급 경찰관서에 경승으로 위촉된 스님들은 크나큰 위용과 포부를 가지고 경승단 발대식에 이어 전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불교도 교화활동을 할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희망을 가졌었다.

사실 이땅에 1,600여년의 역사를 갖고 한반도의 민족종교로 자리잡아온 불교가 100여년 밖에 안된 타종교세에 밀려 군이나 경찰에 포교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밖에서만 어정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잠긴 문을 보고 투쟁이라도 했지만, 문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벌써 10년이 흘렀는데도 제 노릇을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언가 크게 반성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안된다.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현재 각 경찰서에 위촉된 경승은 560여명(조계종 363, 태고종 77, 기타 100)으로 기독교의 경목 1,867명에 비하면 1/3 수준이며, 251개 경찰서중 197개소에 경승이 위촉되어 있으나 경승실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곳은 겨우 67개소이며, 경찰불자들의 모임이 조직되어 있는 곳은 고작 10여곳에서만 직장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승이란 이름만 있을 뿐 활동은 5%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숫자적으로도 타종교이 비해 열세이면서 활동마저 부진한 상태이고 보면 불교계와 경승단 전체가 재발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승단이 발족할 때의 열기와 개혁종단의 의지를 되살려 경승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몇가지 제언하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을 재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며, 활동이 미진한 곳은 독려하고, 경승이 없는 곳은 추천하여 전 경찰서에 경승이 위촉되도록 하고 각 경찰청과 경찰서의 연대조직으로 단합된 연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경승의 자질향상이다. 경승단은 발족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동국대학, 중앙승가대학 졸업자를 비롯한 일반대학 출신자로서 지방승가대학을 마쳤거나 지방승가대학을 이수해 현실감각에 맞게 포교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아졌다고 본다. 경찰의 특수성을 익힐 수 있는 특수교육이 실시돼 법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찰서마다 경승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거종단적 차원에서 정부와 타협하여 투쟁을 해서라도 경승실을 확보하고 타종교와의 형평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넷째, 경승실 운영에 따른 지원확보이다. 종단차원의 예산이나 포교자료 지원도 필요하지만 해당구역내에 있는 주지나 포교사의 행적적지원이 보장되어 지속적인 경찰서 교화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혁종단이 들어서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여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어두움을 밝혀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불교가 앞장서고 있다. 특히 금년은 조계종이 '전법의 해'로 정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더욱 강도높게 실현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 새삼 기대해 보고 싶다.

종단의 표제도 중요하지만 경승의 책임을 위촉받은 개개인도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전법활동의 최일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드라마 속 종교갈등

사랑하는 두 남녀가 양 집안의 불교와 기독교라는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해 결혼이 큰 장애에 부딪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던 소재인 종교를 배경으로 청춘남녀의 사랑과 결혼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MBC 주말연속극 '사랑한다면'은 특히 다종교국가인 우리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드라마 '사랑한다면'의 극본을 맡은 작가의 말과 함께 PC통신에 쏟아진 각 의견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PC통신 의견모음

○… 이 드라마는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에 관해 잘못된 편견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불교는 운세나 점에만 집착하는 등 너무 미신적인 종교로 표현되고 있고, 기독교는 너무 권위적인 면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소재를 시도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전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SOODAE〉

○…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특정 종교를 너무 몰아 세운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참신한 주제와 긴장감있는 내용전개가 돋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이 드라마의 내용을 높이 사고 싶다. 물론 나도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 부딪치면 다들 어떻게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해결될 것도 같다. 〈MINSJ〉

○… 불교와 기독교는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대립적인 관계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종교에 대한, 특히 타 종교에 대해 선입견이 많다. 내가 보기엔 이 드라마는 종교때문만은 아니다. 극중 영희엄마의 과거가 더 큰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종교라는 소재를 사용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극적 효과를 위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BS0309〉

○… 종교라는 예민한 소재를 드라마로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재로 신앙인들의 생활에 비해 드라마에서는 그 표현이 너무 서툰 것 같다. 내용 자체도 약간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기독교나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완성도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길…. 〈SSHS1006〉

○… 드라마를 좀더 극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를 너무 왜곡되게 표현한 것 같다. 극중 양미경씨의 툭하면 쓰러지는 역할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등 현실적이지 못하다. 소수의 부유층과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빗대기보다는 진솔하고 현실감있는 드라마를 방영했으면 한다. 〈SONATEN〉

○…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두 종교를 비교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종교에 민감하다. 이 드라마를 많은 종교인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드라마를 전개해 나가길 바란다. 〈BITRO〉

○… 도대체 영희(심은하 분)는 어떤 인물이기에 매일 우는걸까. 아니 작가는 왜 영희를 매일 울리는가. 영희는 마치 저능아 같다.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챙겨주고 아버지가 반대하면 꼼짝을 못하는가? 그건 일종의 가정폭력 아닌가? 왜 당당하게 자신의 표현을 못하는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부모가 짝지어 준 사람과 결혼해야만 하는가? 작가에게 묻고 싶다. 〈VITAMINE〉

위 내용은 PC통신 MBC On Line 전자게시판 움부즈맨에서 발췌.

종교소재 참신…결혼 본인의사 중요
특정 종교 단면 부각 객관성 보완을



◇드라마 '사랑한다면'의 한 장면.

최성실 〈'사랑한다면' 작가〉

삶의 다른 방식 화해과정 그려

우리는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 갈등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종종 만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원래 한뿌리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종교의 벽은 점점 더 높아만 간다. 사실 종교문제는 성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대중매체에서 작품화 하기를 꺼려온 소재다. 그러나 종교인구가 전국민의 반을 넘는 현실과 다종교사회인 우리 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사랑한다면'은 이같은 우리의 현재상황을 드라마라는 도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제작됐다.

극중 주인공인 영희(심은하 분)와 동휘(박신양 분)는 집안의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워한다. 이 드라마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사랑한다면 결혼해야 한다는 해피엔딩적인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후 양가의 문화적 갈등도 중요한 갈등요소로 드라마에 투입될 것이다. 결국 '사랑한다면'은 요즘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종교를 왜곡하거나 미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적 토대를 지닌, 다시말해 제각기 다른 삶의 방식속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이 그 속에서 공통성을 찾고 합일되는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부종교갈등 상담사례

신뢰·사랑있으면 갈등해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종교문제는 있다. 특히 부부의 종교가 다를 경우 그렇다. 얼마전 30대의 불자인 부인이 기독교신자인 남편을 불교로 인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상담을 해 왔다. 이럴 때 우선은 부부 상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자세와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부인은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며 부처님의 정법대로 생활하다 보면 남편 또한 부인의 모습에 감화를 받게돼 불교포교는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될것이라고 상담을 해주었다. 드라마 '사랑한다면'도 그러한 종교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 종교문제로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의 모델을 제시하는 드라마로 전개됐으면 한다.

조현숙 〈자비의 전화 상담원〉

목어

봉정암은 폭설과 폭풍속에서도 적멸보궁 기도도량으로 여전하다. 오히려 설경의 봉정암은 더욱 성스러웠다.

-2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 손발이 시려 견디기 어려웠지만 기도불자는 끊이질 않았다. 법당에는 난로가 하나 있지만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정도다. 그러나 30대의 기도법사 대성스님의 4분정근(매회 2시간30분씩 하루 4회 10시간 정근)은 흔들림이 없다. 목탁소리는 시종 힘차고 일심염불이 고르기만 하다. 스님의 목탁·염불소리에 젖은 참배불자들의 불심이 추위를 녹였는가 법당안엔 훈기가 감돌았다.

대성스님의 기도는 좀 특이하다.

"조계산 송광사 활안스님(대성스님 은사)의 가르침에 힘입어 기도마치는 날까지 아무 장애없이 성취하길 발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조선시대 기도법 그대로 40~50분 걸리는 동방해탈주를 염불한다.

새해 첫날을 봉정암에서 맞은 지묵스님(송광사)은 성도절 아침 대성스님 이야기를 했다.

"강한 장사아래 약한 사병 없다더니 조계산 활안스님의 체취를 설악산에서 느낄 수 있어 몹시 기쁘고 놀랐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열어주신 은사님을 참하면서 가르침대로 염불하는 효상좌 대성스님을 보며 은사 존경심에 감동했어요."

은사의 법명을 말할때면 꼭 첫자앞에 '上' 아래자앞에 '下'자를 붙이는 지묵스님이기에 대성스님의 모습이 더욱 눈에 들어 왔는지도 모른다.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섬기고, 못 보았을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같이 하며, 음식을 생각하는 것같이 해야하느니라."(중심경)

눈앞의 스승 섬기기를 다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불자라면 마땅히 인천의 스승이신 우리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것이다. 부처님 섬김은 무엇인가. 성도이후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완성으로 이끄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여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향기가 늘 피어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성도절을 기리는 의미가 있으리라.

봉정암의 대성스님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

1997년 1월 현재

단위조직명	단위조직장	연락처
강릉지사	전유진	(0391)651-9317
고양지국	전중수	(0344)912-2323
공주지국	양종윤	(0416)55-0020
광주지사	주용직	(062)375-9986
대구지사	김종구	(053)768-8008
대전지사	박형권	(042)625-1080
마산·창원지사	이창희	(0551)84-0735
목포지국	박남순	(0631)281-2534
부산지사	이종판	(051)634-5114
북인천 지국	황경숙	(032)541-8770
속초지사	박혜란	(0392)636-3823
안산지사	박연범	(0345)408-0961
인천지사	이동구	(032)461-3461
영주지국	박영애	(0572)34-3429
제주지사	임조형	(064)55-9800
춘천지사	박민호	(0361)241-0633

(가나다순)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현대만평

박구원



불교도 세계화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대웅보전(법당)기공식 법회 안내

일시 : 대각응세 정축년 음력 1월18일 지장재일
서력기원 1997년 2월 25일 사시

장소 : 네팔 바브라하와 루판데히 룸비니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大聖釋迦寺)

소생 각현 법신은 은사겸 법사이신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佛心 도문 법사의 지도로 대각응세 을해년 서기 1995년 4월 8일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 대성석가사 주지 소임을 감당하여 이제에 이르렀습니다.

소생 각현 법신은 1년 10개월 동안 이 불탄 성지에 머물러 서울 종로 대각사,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부산 남부민2동 천마산 중생사, 경주 내남 용장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의 스님네와 뜻있는 신도등의 성원과 성지순례의 4부대중의 동참과 뜻있는 불자등의 후원 특히 관음행 나경화 보살님의 특별 시주금 3억원을 기초로하여 손정각행보살님 내외불자님의 후원과 정자현심 보살님 내외분의 외호로 대내외적 만반 기반을 세운위에 제1요사 3층 7백50평을 창건하였습니다.

룸비니 개발위원회 록다산 전위원장님과 삼부토건 네팔주재 정대목과장님과 동국대학 사찰 조경연구소 홍광표소장님의 부지 임차의 성취와 네팔 카투만두 코네코사장 普光 정현일 거사님 자재행 윤석례 내외불자님의 후원과 지도로써 자재 공급을 위시해서 15년간의 네팔에서 사업 활동하신 지혜와 기술자 지원 그외 대소사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공사비가 10분의 1의 경비로 제1요사 3층 750평의 창건이 성취되었나니다.

그리고 용천 박시민 수승행 한명옥 내외불자님의 인권으로 수원 지성설계사무소 손제석 사장님의 제1요사 건축설계의 지원과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신도회고문 용천 박시민 거사님 부회장 수승행 한명옥 내외불자님께서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삼존성상을 조성하여 봉불점안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수도의 표본으로 교화의 지침으로 중생의 복전으로 잘 모셨나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 대각사 총무 각천 청청스님과 대각회 이태석 사무국장님, 김용춘사무장님, 민경재 사무장님, 김법왕심, 한견덕화, 오성덕심, 정만행화, 정자현성, 홍정자, 정수현심회장님 등과 ,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총무 무진스님, 정법인화사무국장님, 신범왕덕사무장님, 이무량수사무장님, 이사리불, 황대광화, 하길상화, 김반야행, 한문수화, 양대직행, 한심지화, 한보현화, 한관음화, 정대법화, 한수승행, 윤자재행, 문금강수, 강묘각화, 왕보리안, 손정각행고문님등과, 부산 중생사 주지 금정스님, 백정혜월, 조성지화, 배명선행, 옥약왕화, 옥삼매화, 김원일화회장님 등과 경주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강금강업, 서문수화, 강무량화, 박대명심, 김관음주, 차대법화회장님을 위시로한 거룩하신 스님네와 뜻있는 신도 제위의 후원으로 이 불사가 순조로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느님을 위시로한 천룡팔부신중님의 가호로써 우기철이지만 대성석가사 주위에는 비가오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또 다음해 우기철에는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많은 비가 와서 룸비니 국제사원구역내 모든 사원에는 물이스며 넘쳐버렸지만 대성석가사에는 수해의 피해도 없었나니다.

국내에서는 1)백제불교 초전법륜성지 서울 서초동 전통사찰 우면산 대성사 복원불사 성취와 2)신라불교 초전법륜성지, 구미 선산 도개동 아도모례원에 모례장자 신라의 옛집 복원불사 성취와 3)호국호법신라고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복원불사 성취와 4)가야불교 초전법륜성지 창원 봉림동 봉림산 봉림사 봉림선당 복원불사 성취와 5)용성진종조사 탄생지 죽림리 생가복원 불사 성취와 국외적으로 6)부처님이 성도하신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원과 7)최초로 설법하신 바라나시 녹야원과 8)오래 주석하신 기원정사와 9)입멸하신 구시나가라 사라쌍수원에 대성석가사 창건불사 성취인 용성진종조사 유훈 열가지 조목이 날날히 실현되기를 발원하면서 대각응세 정축년 음력 1월 18일 지장재일에 관음행 나경화 불탄 성지 룸비니 대성석가사 창건주를 위시하여 우리나라 불교 사부대중은 물론이요, 온겨레 전인류 만중생 다함께 석가여래부촉법 제 68세 용성진종 대사의 유훈 10가지 조목을 날날이 실현하여 불교중흥과 민족중흥을 바탕하여 남북통일의 성취와 동서평화의 달성으로 일체중생 성불인연 되어지기를 발원하면서 10)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대웅보전(법당) 기공식 법회에 동참해 주시옵기를 국내외 4부대중 7중불자 제위에게 우러러 알리옵니다. 그러기에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 조사 유훈 십사목 실현 성취를 위해 이 국내외 10대 성지 가꾸기를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불심도문 법사께서 국내에서 지도하고, 지휘하여 이 10대 대작 불사를 일시에 다함께 성취하기를 발원하옵나니 한군데 성지 가꾸기 1만원씩 열군데 성지가꾸기 도합 10만원씩의 십시일반의 수희 동참으로 불사 성취를 간절히 바라옵나니다.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창건주는 관음행 나경화보살님이시고, 불타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원 창건주는 대원경 박귀선보살님이시며 불타 초전법륜성지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의 창건주는 대심행 전연심보살님이십니다. 이 세분 창건주 보살님들께서는 크신 원력을 세우시고 깊으신 심신을 내셨음을 제불보살님과 천룡팔부 신중님과 만 천하 4부대중에게 우러러 고하옵나니다.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 주지 각현 법신 합장. 전화) 001-977-71-29474

국내연락처 서울 종로 봉익동 대각사 전화 : 765-0972 팩스 : 742-2126
서울서초구 우면산 대성사 전화 : 583-1475 팩스 : 583-2700
부산 서구 남부민2동 중생사 전화 : 051)242-4234 팩스 : 051)244-8468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전화 : 0561)748-8815

송금 구좌번호 농협 001-01-293325
거래명 (우면산 대성사) 임윤화

해외전법·학문교류 교두보

조계종 어학학교 설립·유학승 파견의미

외국어가능 인력 확보 불교세계화 촉진

빨리어등 전공자양성 불교학 발전 기대

스님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전문 특수학교 설립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40여년만의 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외국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불교가 국제무대에 나서기 시작한 50년대부터 제기되었다. 국제불교대회에 참석하였으나 언어소통이 안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스님들에 의해 외국어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열기가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는 개인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해 종단차원의 본격적인 외국어교육이 실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원이 어학학교 설립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의 미래상 확립을 위해 어학인력 확보가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개설한 교역자양성 전문학림인 승가대학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데 따른 자신감도 한몫했다.

교육부장 향적스님은 "외국어는 해외 및 국내거주 외국인포교는 물론 선진 불교학 및 불교계의 움직임을 직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 발전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선진불교학 및 외국불교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1차적으로는 언어이기 때문"이라며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원은 이미 입학대상자 파악에 들어갔으며, 어학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도 편성할 것이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어학학교를 직지사에 설립키로 한 것은 교통여건이 좋을 뿐만아니라 직지사 주지인 녹원스님이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교수진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직지사가 연수원을 운영하며 교육·수련도량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어학학교 설립사찰로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스크리어 및 빨리어전공 유학승 파견은 한역경전에 의존했던 불교학과 불교전반에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승가대 객원교수 김영씨(산스크리트어 전공)는 "부처님의 원음을 들을 수 있는 열쇠는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라며 두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학승 파견조치를 환영했다.

김교수는 또 "단순히 산스크리트와 빨리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경전 역사 철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비롯한 기본적인 어학실력과 배움의 대원력을 지닌 승려들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연구인력을 활용해 산스크리트어 및 빨리어 경전 번역 및 보급을 담당할 연구소 설립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학승을 파견할 인도 뿌나대학은 학부 4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사과정 이후에는 브하흐만으로부터 도제식수업을 받는 아짜리아(Acarya.대선사) 과정으로 이어진다.

정성운 기자



◇스님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특수학교가 설립된다. 사진은 승가대학 강의모습.

교육원 새해사업

행자교육원상설등 5대목표 추진

비구니학림 개설·학적 전산화

조계종교육원은 새해사업 목표를 '교육제도의 정착'에 두고 △상설 기초교육원 준비 △기본교육의 정착 △학림의 확충 △본말사주지재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육행정의 체계화를 5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사업 내용을 정리한다.

기초교육원 상설화 추진 그동안 범어사 통도사 등에서 시행해오던 기초교육원(행자교육원) 상설화를 주요 종책사업으로 추진, 98년에 개설토록 할 계획이다. 습의교안 통일, 현행 6개월의 교육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교육기관 정착 기초선원 운영과 함께 교육원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다. 종단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키 위해 교역자 위상 및 대우를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검인정 교재 및 교안 통일, 전통을 살리면서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설과 교수방법의 보완, 학인의 학습여건 개선도 주요한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재 해인사 동화사에 설치된 기초선원을 확대하고 산철교육기간을 1개월로 설정, 부처님의 생애와 인도불교사, 사미율의·습의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학림의 확충 교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학림의 추가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비구니 학림을 설립할 계획이다. 비구니학림은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운문사가 준비중이다. 이와함께 율원을 종단의 공식적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잡도록 교육내용을 보완한다.

어학학교 등 특수학교 설립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담사 만해문화학교, 직지사 어학학교를 특수학교로 인정해 불교전통문화와 어학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원은 이와함께 교육행정의 체계화를 위해 3천여명에 이르는 학인들의 학적을 9월까지 전산입력할 계획이다. 또 본말사 주지스님과 국장급 소임자, 교역직 종무원 등 계층별 직능별 연수 및 재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불학연구소(소장 밀원)는 강원백서 발간(4월), 승가대학 교과과정 및 각국 승가교육 방법 연구, 세계승가의 수행체계와 소의경전 심포지움 및 자료집 발간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

시 론

'진퇴양난' 푸는 슬기



연 기 영
〈동국대 교수·법학〉

파업정국이 심상찮다. 정부여당 조차도 내부적인 의견 충돌이 있고 위기감을 느끼는듯 비쳐지기 시작했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이란 말이 의미있게 들린다.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기습처리 개악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연일 개악된 관계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공권력으로 이에 맞서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뾰족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화속에 해법 있다

각계 각층이 노동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학계·종교계·문화예술계 지도자들은 사태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수습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날치기 처리된 안기부법·노동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법학교수들의 규탄성명에 이어, 각계각층의 의사표시와 거리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파업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받아놓고, 그들의 검거를 위해 명동성당에 공권력 투입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견해다. 더군다나 지난 15일 관계장관회의 후 대검공안부장이 발표한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 등의 강경대처 방침속에는 파업사태가 정치투쟁 양상을 띄어 체제부정의 이념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규정하는 대목까지 들어있다. 시위와 파업사태를 이념과 안보문제로 덮어씌우던 군부독재정권 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야당이 날치기 법안의 원천무효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국민 1천만 서명운동'에 들어가면서 순회규탄집회를 갖는등 노동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강력한 정치투쟁을 선언한 것이며 대통령선거의 '표'를 의식하고 강도를 높일 기미가 보인다.

분명 지금은 위기정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왜 집권여당과 정부는 온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국타개의 '해법'을 못내놓는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더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우선 오늘의 위기정국을 탄생시킨 원인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날치기로 악법을 통과시킨 정부·여당의 정치적 역량 부족에 있다. 이들이 모든 국민 앞에 참회하고 앞장서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이나 노동계와의 대화통로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여당의 총재이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들 대표들과 마음의 문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한다. 각계각층에서 들려오는 '문민독재'라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등을 돌리는 국민들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고뇌할 때이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렇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안기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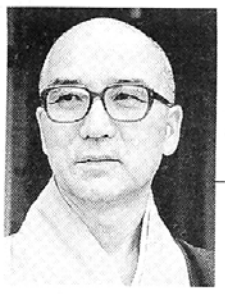
노동법의 개정은 두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첫째는 절차적인 하자로 구랍 26일 새벽 신한국당에 의해 주도된 '날치기' 통과가 문제이다. 외국언론들도 일제히 '문민 날치기'를 비난하고 한국 민주화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안기부법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 악용되던 '독소조항'들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이다.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수사권이 다시 안기부로 돌아감으로서 인권유린과 용공조작의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관계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를 이정권 후로 유보한 것과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를 신설한 것은 열악한 노동운동과 노동관행 속에서는 지극히 '악법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정한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내용들이다. '노동 탄압국' '노동 후진국'이라는 국제여론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길만이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화합·공동체의식 절실

노·사·정이 이제 더 이상 갈등대립의 형국으로 가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라. 너 나 할 것없이 강경대응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부처님의 화합과 자비의 정신을 되새겨 보자. 연기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슬기로운 지혜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여당부터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여론에 귀를 기울일 때임을 강조한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진 철
〈통도사 한주〉

남을 위해 사는 여유

부처님이 세상을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고 말씀했듯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낮과 밤이 존재하고 또 춘하추동(春夏秋冬)이 재미있게도 찾아왔다가 가버리곤 하는 세월속에 움직이며 사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대개의 종교가 유사하겠지만 특히 불교는 인과응보의 법칙의 근본인 업을 중요시한다. 평소의 삶속에서 익힌 모든 업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악업을 참회한다고 하는데….

참회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견성성불(見性成佛)하여 불국정토(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악업을 제거하고 선업을 축적하다 보면 성불한다. 일상을 사는 우리는 악업을 소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곧 '참회'이다. 수없는 생을 살면서 익힌 모든 악업을 참회하면 본성이 깨끗해진다고 한다.

신앙은 양심을 만들고 교육은 지성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상세계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며 이 길은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표현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멋진 부처님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무시무종(無始無終)속에 대도무문을 찾아야 이상세계를 맛볼 수 있으며 그것은 참회를 통해서 철저한 무소유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느 분이 광소에 대도무문을 좌우명같이 늘 휘호로 쓰며 자기를 표시하더니 정축년 신년휘호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고 썼다. 그러한 급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그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아무튼 이 세상에 화두를 던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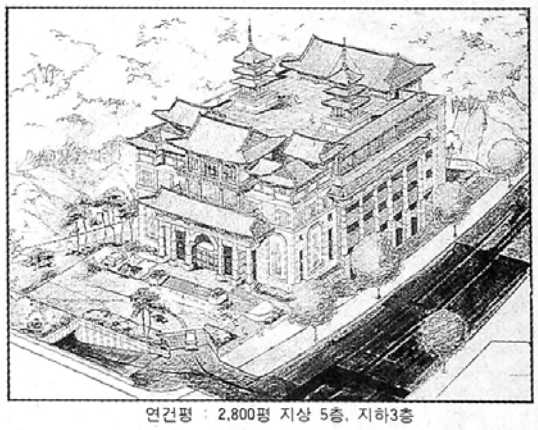
얼마전 뉴욕에 갈 일이 있었다. 그곳은 자연과 생명이 함께 살아가도록 참으로 쾌적했다. 또 서로 존중하고 모두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한없이 기다리는 여유있는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공허한 욕망속에 앞뒤없이 뛰어다니며 사는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게 했다. 참회없이 앞만 보고 분별없이 경쟁하는 무질서가 누적되어 고치기 어려운 개인의 습관과 사회의 관습을 만든 것 같다.

내인생을 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유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는 우리 모두의 참회만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부처님품안 따뜻한가정

一山 頂鉢山 如來寺

萬佛殿起工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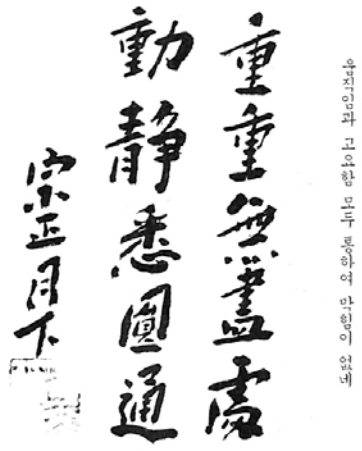
연건평 : 2,800평 지상 5층, 지하3층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통도사 일산포교당
정발산 여래사 만불전 기공식을
교계의 원로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불기 2540년 2월 2일 오후 2시(일요일)
■ 장소 : 일산신도시 정발산 여래사

가자, 전하러가자, 부처님말씀 전하러가자



통도사 일산 포교당 如來寺 萬佛殿 佛事를 위한 증정 예하의 휘호입니다.

重重無盡處 動靜悉圓通
(겹겹이어 다 함이 없는 곳 움직임과 고요함 모두 통하여 막힘이 없네)

"부처님은 오직 이 일이 있으실 뿐이시니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시며 중생의 마음에 눈을 맑게 하시며 온갖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끊게 하시고자 이땅에 출현 하시었느니라"

—화엄경—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사바세계가 곧
극락세계로 이루어진다.

—무량수경—

大韓佛敎曹溪宗 通度寺 一山布敎堂 頂鉢山如來寺 住持 頂宇 合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0번지
전화 : (0344)905-7766 여래사 (0344)913-7744 원각사
(02) 575-7766 구룡사

법회 안내

조계사(02)732-2115

신도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회법회 매주 토 오전11시
반야회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원심회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대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홍은사(02)822-1990

초하루법회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5~18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1·3주 토 오후7시

관등사(02)355-4148

일반법회 매월 3일(음) 오전10시
방생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광명사(02)735-189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구암사(02)877-237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반야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해동용궁사(02)722-7744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연호사(0356)85-0686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일요정기법회 매월 일 오전10시30분

은적사(053)653-1572

거사림법회
매월 1·3주 매주 수 오후7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월 오후7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삼충사(0441)847-729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3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총년정토회 1,124,000원 △우리는 선우 1,000,000원 △경불련 1,000,000원 외 3개단체 △지하스님 1,000,000원 △운용숙 1,500,000원 김무영 2,000,000원 △이익효 1,000,000원 △최수인 1,000,000원 외 18명 △가두캠페인 486,0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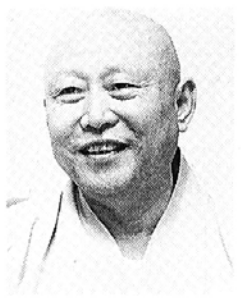
〈15일 현재 총 56,431,110원〉

· 후원금 접수 : (02)3672-5373
· 국민은행 : 818-21-0179-96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 인터뷰

새싹포교·호남불교에 '새바람'

대상 천 운 스님 (대둔사 주지)



"불교발전을 위해 평생 원력을 세워 실현하신 선배스님과 불자도 많은데 제가 포교대상을 받게 되니 미안할 따름입니다."

30여년동안 불교의 불모지인 전남·광주일원에서 포교활동에 주력해 한국불교에 호남불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천운스님(대둔사 주지)이 포교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스승의 모습으로 성불하겠다는 신심을 키워주었고, 끊임없는 정진력을 가르쳤다"며 어린이포교가 호남불교 붐 조성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향림유치원, 향림사어린이집, 천운어린이집을 설립해 어린이 포교활동에 앞장서는 한편 70여명의 고아, 소년원 등 소외당하기 쉬운 불우이웃을 돌보는데 한평생을 다했다. 또 전남지방결찰청 경승실장, 광주교도소 교화위원회 불교회장 소임을 보며 군인, 경찰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온 우주가 나와 더불어 사는 것인만큼 정신이상자, 장애자, 고아들을 위해 불자들이 적극 대자대비를 실천하며 살았으면 한다"는 스님은 불교복지향상을 위해 남은 여생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창기 청소년 포교 기틀 다져

공로상 김 재 영 법사 (동덕여고교사)



1970년 청소년포교라는 단어마저 생소하던 시절, 종립학교도 아닌 동덕여고에 불교학생회를 만들어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김재영법사(동덕여고 교사)가 조계종이 시상하는 포교대상 공로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김법사는 불이상에 이어 1월에만 겹상을 받은 것.

김법사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만 뒤로 물러나야 할때임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인연이 있는한 묵묵히 제 몫을 다해내는 진실한 한사람의 불자로 내 길을 가겠습니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전교생의 1/5에 육박하는 3백여명의 불교학생회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김법사는 교사생활 틈틈히 청소년 포교지 〈보리〉를 비롯 불교교재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우리도 부처님처럼〉 등을 펴냈다. 또 '청보리회'를 결성, 재학생과 졸업생간의 유대관계를 마련하고 꾸준한 신행생활을 도왔다.

"청소년포교는 불교를 위해 포교하지 말고, 청소년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청소년비행을 비난하고 방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불교의 문제로 인식, 해법을 찾는 지혜를 내야 합니다"며 생활속 불교를 통한 청소년포교의 대안을 제시했다.

도필선 기자

교 차 로

서울 경찰청 경승위촉 받아



자우 금강사 주지는 지난 6일자로 서울경찰청 경승으로 위촉됐다.

스님은 79년부터 서울시경 경승법사로 추천돼 활동해 왔다.

'연꽃삶' 경승 회지 발간



혜광 국립경찰병원 경승실장 스님은 최근 〈연꽃삶〉이라는 회지를 발간했다. 〈연꽃삶〉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등을 특별기획 했다.

불우이웃에 설 위문품 전달



종운 해원사 주지는 지난 20~22일 성북구내 생활보호대상 1백50가구에 각각 쌀 20kg, 라면 2박스, 떡을 전달했다.

관음대비원 방문

혜진 시연사 주지는 오는 23일 시연사 자비회 회원과 함께 파주 관음대비원을 위문한다.

해인사일대로 성지순례

성원 선원사 주지는 오는 23일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해인사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서울시 고위공무원 대상 특강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지난 15일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 고위공무원(1급~4급) 6백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한다.

청불회 법정스님 초청법회



박세일 청와대 불자회장(사회복지수석)은 오는 29일 오후6시 서울 법련사에서 법정스님을 초청해 월례법회를 봉행한다.

문화재수리기능인협회장 재선



전흥수 (사)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장은 지난 10일 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새 회장에 재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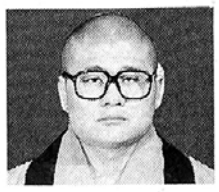
日서 한국차문화 소개 행사



감승희 한국차생활문화원장은 회원 20명과 함께 일본 기다가마꾸라 박물관에서 '한국차문화 소개의 날' 행사(2일)를 위해 오는 2월 1일 일본으로 떠난다. 4일 귀국 예정.

자비동자 보급 운동

효 종 스님



"청소년회관 세울 터"

"청소년 포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한 공간부재를 안타깝게 여기다 청소년 회관건립의 원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각 가정마다 자비동자그림을 보급중인 효종스님(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부산지부장)의 말이다. 3년전부터 청교련 부산지부를 맡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포교에 힘써온 스님은 지난 6월부터 청소년 회관건립의 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자비동자상을 그리고 그것의 판매수익으로 건립기금을 조성중이다.

스님은 "청소년회관은 100평 규모 5층 건물을 도심속에 건립할 계획"이라며 "다도교실, 예절교실 등의 청소년 문화강좌를 개설해 청소년 교육과 포교공간으로, 또 예식장이나 각종 행사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물론 불자 모두가 한국불교의 미래와 자신의 자녀를 위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051)633-6412

부산=천미희 기자



재가단체 신년하례법회

재가단체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15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김명윤 불교단체총연합회장, 안동일 재가불자연합회장 등 신행단체대표와 석주(칠보사조실) 청하(조계종 전계대화상) 법흥(원효종종정)스님, 김영수 문체부장관, 송석구 동국대총장,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최형우의원, 조해형 BBS사장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제12회 불이상 시상식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시상하는 제12회 불이상 시상식이 지난 16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 김재영법사(청보리회 대표) 명성스님(동국대 역경원) 선담스님(동국대 박사과정) 등 수상자 4명과 정병조교수(동국대) 윤용숙씨(여성문제연구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동국불교미술인회장 뽑혀



전연호씨는 동국불교미술인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수석 부회장에는 이진형 부회장에는 곽동해 정병국씨가 선출됐다.

심성개발 상담센터 개설

현정 시인(한국JTS 감사)은 최근 서초구 방배동에 '현정 심성개발 상담센타'를 개설했다. 상담센터에서는 개인상담 성격교정 심성개발 등 다양한 마음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585-0042



(주)헬리코리아 이사 취임



이주영 가람기획대표는 지난 3일자로 (주)헬리코리아 업무이사에 취임했다.



◇장익법사



◇김사업씨



◇이기운씨



◇박인성씨

동국대 불교학박사 6명탄생

동국대 96학년도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으로 모두 6명이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논문은 장익법사의 '밀교형성에서의 중관유식의 교학적 수용 연구'를 비롯 황규찬씨의 '신라 표원의 화엄요의 문답연구' 김사업씨의 '현상의 성립에 관한 유식적 연구' 이기운씨의 '법화삼매의 사상체계 연구' 박인성씨의 '유부의 유위사상에 대한 제비판연구' 김성철씨의 '용수의 중관논리의 기원-방편심론의 상응논법을 중심으로' 등이다.



◇김성철씨



◇황규찬씨

수석합격

동국대 △서울 캠퍼스 수석 한천희(포항제철고 졸·연극영상학부 지원) 1,000점 만점 889.4점
△경주캠퍼스 수석 이상헌(학성고 졸·한의대 지원) 1,000점 만점 887.256점
△불교대학 수석 임진영(성보고 재) 1,000점 만점 826.988점
△전체수석 김승곤(대구심인고 재·이공학부 지원) 1,000점 만점 882.85점
위덕대 △불교학부 수석 김민철(김천고 재) 1,000점 만점 704.90점

인사

대한불교신문 △회장 홍교스님(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 △사장 도봉스님(천불사주지)

이전 유마선원(원장 이제열)은 최근 양천구 신정2동 117-36(2층)으로 이전했다. (02)654-9121

생활속의 불교 106

형형색색의 그물에 갇혀서 살면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이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 우주 전체는 생명의 근본 마음, 인간의 근본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 우주 삼천대천 세계는 그냥 하나로 통해서 벽도 없고 천장도 없다. 일체 제불의 마음이 곧 내 한 마음이고 일체 제불의 법이 곧 내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이다."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물음이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본래 없다. 일체 만유의 근본이 같다면 각각의 모양으로 드러났다해도 근본이 다르지 않으니 돌아갈 곳이 따로 있지 않다. 물론 만물은 형형색색이다. 각각의 모습이 다르다. 하지만 근본이 같다면 모습이 다르면서 실은 다르지 않으니 묘용(妙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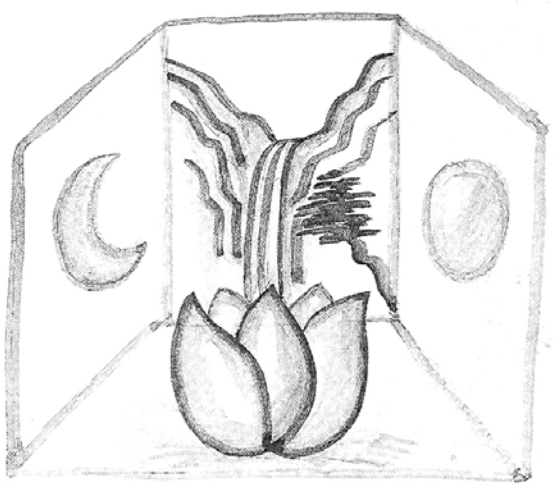
나와 일체 만물이 근본마음에서 같다면 그 마음자리에서 나와 우주는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다. '나=우주'이므로 형형색색의 만물은 나의 일부이다. 나의 손이요 나의 발이다. 고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놀리고 부릴 수 있다. 다만 내가 일체와 한마음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육신 울타리를 경계로 나와 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이 육신이 아닌 근본 마음자리에 들면 우주는 이웃 동네집, 아니 내 살림살이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우주를 떠받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근본 마음자리-법신불이라해도좋고 주인공이라해도 좋지만-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이다. 멀어서 못가고 막혀서 못가는 일이 없다. 빠르기로 말하면 빛보다 빠르고 크기로 말하면 우주보다 크고 작기로 말하면 겨자씨안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

이 근본마음자리는 일체 만물을 토해내고도 줄어들지 않으며 일체 만물이 들어가도 늘지 않는 자리이다.

그래서 육조혜능스님께서는 이 법신



자리를 깨달으시고 '자성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랴.' 하셨다.

근본 마음자리는 무주상(無主相)이다. 머무는 자리가 없다. 나와 너에 머물음이 없고 이곳 저곳, 생사, 시공, 이 물건 저 물건에 대한 분별이 없다.

따라서 너와 나는 둘이 아니요 생과 사가 다르지 않으며 모든 대상에서 평등하다. 고로 극락이 지척이고 지옥이 발밑이다. 소를 건지려면 소가 되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된다. 무주상이므로 본래는 병 붙을 자리도 없고 명리(名利)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으로 반연 경계에 얽매여 상이 없음을 상이 있음(有住相)으로 보니까 번뇌와 괴로움에 말려들게 된다. 본래 고요하고 편안한 자리가 그만 엉망이 되고 분별의 그물에 갇혀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금강경 말씀에 '수보리야 여래를 여래로 보느냐'는 물음이 있다. 본래 무주상인데 너는 유주상으로 볼 것이냐를 반문하는 경책의 말씀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라 하였다.

형상이란 본래 상없는 근본마음자리의 나툼이요 쓰임일 뿐인데 형상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하였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여래를 본다고 한 것이다. 허망하다 한 것은 따로 따로 보는 분별이 허망타 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형상은 근본마음 자리에서 저 물거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바로 보라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보아 근본 마음자리에 계합되면 마음은 일체제불의 법이요 생활이 되는 것이다.

이 육신에 갇힌 나로서는 아무리 뛰어보았자 몇 걸음이 고작이지만 한마음의 자리에서라면 만물이 나의 수족이 된다.

경계의 그물을 끊고 대 자유인으로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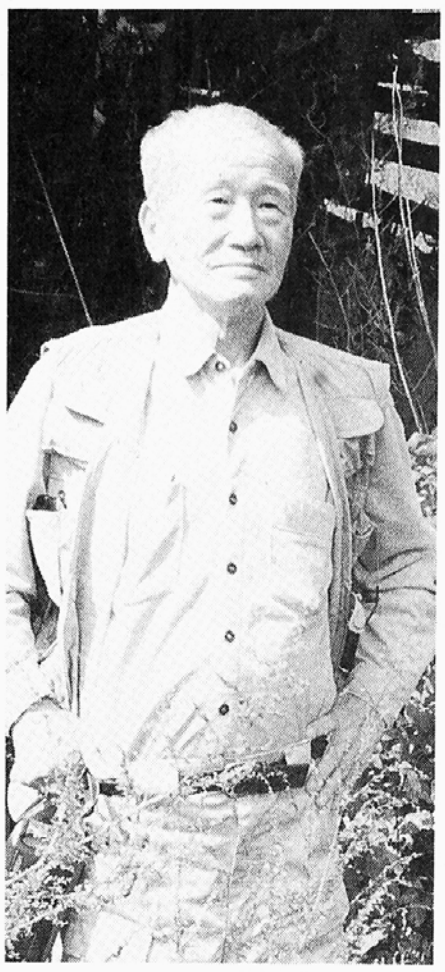
협찬 : 김 정 헌

"쉼없는 의심으로 인간탐구"

산문밖의 禪

원로 사학자 민영규 翁

"학문은 의심으로부터 시작
저절로 자기것이 되는게
아니고 알려고 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선어록에 '문정(問程)을 쉬지 않는다 불파문정(不罷問程)'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팔순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늘상처럼 쉬임없이 오로지 학문(學問)에 전심하시는 선생의 자세는 정녕 구도자의 그것입니다."

원로 사학자 서여(西餘) 민영규(閔泳珪·82, 연세대 명예교수) 翁의 제자 조흥윤 교수(한양대)가 스승의 쉼없는 학문 역정을 예찬한 말이다.

중국의 유교심학인 양명학을 이은 우리나라 강화학파의 학문체계인 강화학(江華學)의 제창자로서, 또한 중국 정중종(淨衆宗)을 완성한 신라 무상(無相; 680~756)대사 중심의 선종사를 새롭게 규명한 사학자로 유명한 민옹은 학문을 '인간 발견의 역사'로 규정한다.

그의 학문의 두 축인 불교사학과 강화학도 '인간에 대한 탐구'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 자신이 제창하고 기반을 다진 강화학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부루카르트의 〈르네상스 연구〉, 비슈레의 〈불란서 혁명사〉가 '인간 발견의 역사'를 말한 바와 같이 모든 학문의 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

"학문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해. 선생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제자에게 전수해도 저절로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냐. 스스로 알려고 하고 깨우치려 해야 해. 스스로 의문을 발할 때 학문에 가닥이 잡혀."

'이 뭣고' 화두참구 처럼 그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학문적인 의문을 화두 삼아 80평생 '묻고 또 묻는' 끊임없는 학문 연찬(硏鑽)을 계속해 왔다. 학문을 평생의 수행방편으로 삼아 새벽에 눈뜨고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한가한 시간에는 실타래처럼 엮어 온 의문을 풀어내는 저술작업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내어 놓은 저서가 〈사천강단〉 〈강화학 최후의 광경〉 등 독보적인 명문(名文)들로 가득한 10여권의 방대한 저서다.

독창적인 학술서이면서도 전혀 딱딱하지 않고 재미가 있으며, 그러면서 가볍지 않은 고아(高雅)한 한문투의 문체로 문학적인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저술들은 '학술논문의 새 전형을 보인 유려한 문체'로 명성이 높다. 그의 지론은 '제대로 알면 쉽게 쓴다'는 것. 완전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으면 글을 명료하게 쓸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글은 동·서양과 고·현대를 넘나드는 방대한 독서량과 깊은 사색에서 묻어나는 멋스런 향 내음과 진솔한 인간미, 지성미가 넘쳐난다.

그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 해박한 지식은 '닥치는 대로 읽는다'는 그의 엄청난 독서량에서 우러나온다. 놀랍게도 〈섹스피어에 관한 연구〉 〈르네상스 연구〉 등이 각별깊게 읽은 책이라 한다. 그의 문장(文章) 선생이 로망롤랑이었다는 말은 더욱 이채롭다.

"공부하기 바빠서 저술을 못해, 쓰기 전에 읽고 싶은 책이 더 많거든. 그래서 자나깨나 책만 붙들고 있지." 그의 독서열을 짐작케 하는 말이다. 82세인 현재도 앞으로 쓰고자 하는 5백여개의 논문주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연구열이 높다. 미해결의 과제가 많기에 책을 놓을 수 없다고 한다.

민옹은 젊은 시절엔 불교 책만 읽었다. 1941년 일본의 불교종합대학인 다이쇼(大正)대학 사학과에서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불교 책을 섭렵했다. 다이쇼대학에서는 연구실 조교로 일하면서 우이 하꾸쥬(宇井伯壽) 교수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6살때 독(獨)선생의 회초리를 맞으며 한학을 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보통학교때까지 한학을 익혀 한문에 통달한 것이 학문을 위한 무불통지(無不通知)의 무기가 된 것이다.

'유마경' 평생독송 사상적 기반…江華學 제창
82세 불구 써야할 논문 5백여편 주제 설정

민옹은 '제발 공부 좀 해 달라'는 말을 불교계에 당부한다. 물론 이같은 애착은 그의 확고한 불교관에서 기인한다. 자신의 건강을 해남 무위사와 도갑사에 다녔던 어머니의 오랜 불공 덕으로 생각하는 민옹의 사상적 기반은 〈유마경〉이다.

〈유마경〉이 〈육조단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민옹은 〈유마경〉에서 꿈틀거리는 혁신사상의 에너지가 중국 선종을 꽃피웠다고 본다. 1~2세기 중반 형성된 〈유마경〉을 대승불교운동의 원형으로 파악한 것이다. 평생을 독송하고 있는 〈유마경〉에 남다른 애착을 지녀서인지 그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천속장(義天續藏)〉에 들어있는 〈정명경집해관중소(淨名經集解關中疏)〉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은 승조(僧肇)의 〈주유마경(註維摩經)〉에 이은 〈유마경〉 연구의 필독서로 인정되어져 왔다. 하지만 원본이 없어 본문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다. 민옹은 조만간 이 주석서를 번역하고 원문도 공개할 예정이다.

민옹은 보살을 더러운 진흙에서 솟아나는 연꽃에 비유한다. 그래서 "출가승은 청계천 밑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유마경〉에 나오는 '보살의 행어비도(行於非道; 非道는 五無間 지옥죽생의 길)' 즉, 죄업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당장에 그 길로 뛰어들어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남전(南泉)이 말한 '이류중행(異類中行; 선사가 수행자나 속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화에 힘쓰는 일)'이나, 일연(一然)의 '경초선(莖草禪; 경초는 소나 말이 먹는 꼴)'도 같은 맥락에서 그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이처럼 그의 불교사학은 '행어비도' '이류중행' '경초선'으로 이어지는 보살도의 궁구(窮究)와 홍포(弘布)라는 일관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유마거사에 빠져 유마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티를 내지 않는다. 이점이 그가 불교학계 보다는 일반 사학계에 더 알려지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결국 그는 누구 보다도 불교 밖에서 불교를 알리는 전법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꼿꼿한 학자로서 외길을 걸어 온 그에게는 달통(達通)한 대선비의 풍모가 흘러 넘친다. "깨달아 혼자 알고 있어서는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민옹은 학문상의 새로운 인식이나 역사적 진실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과 글을 통해 전할 것이다.

김재경 기자

좌선과 참선 어떻게 다르지요

문 참선과 좌선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공견에 빠질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정의진 · 경기 광명시 하안동〉

답 참선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중에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잠자는데 참선의 도리가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찰나로 나툰다는 말을 아실겁니다. 세간의 일체 만물은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를 않고 찰나찰나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를 꼬집어 딱히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때로는 무상하다 말하고 때로는 공(空)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엄연히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고 순간순간의 경계에 따라 나름대로 숨쉬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가운데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비추어 보는게 관법이고 참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선이란 행주좌와 중에 늘 하는 것이지 자리를 고 앉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선엔 좌선도 있고 행선도 있고 와선도 있겠지요.

흔히들 자리틀고 앉아 화두를 보아야만, 그걸 좌선이라 합니다만, 그렇게해야 진짜 참선하는 맛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 세상에 내 육신 끌고나와 각자 살아가는 도리가 그대로 화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렇듯 오묘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 누가 하는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에 관해서도 의문나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면 그게 바로 화두참선일테고 그런 화두참선일랑 일거수일투족에서 어느 장소 어느 때든 가능한 것이지 자리잡고 앉아서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지구는 쉬지않고 돌아가며 내 살림살이 또한 찰나로 나투는데 앉아야만 참선이 된다면 지구가 그때만 돌고 내 몸뚱이 그때만 움직이던가요? 앉았다 일어서면 이 도리도 멈추고 마는가요?

참선이다 좌선이다에 따로 형식이 있고 격식이 있는게 아니라 생활이 곧 참선이요 행주좌와가 그대로 참선인줄 아셔야 합니다.

또 공부하는 중에 공견에 빠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역대조사들도 다 그 점을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들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또다른 망견을 경계하신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제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라 합니다. 어느 것도 고정된 것이 없이 찰나로 나투니 무상이요 딱 집어서 나라고 할 게 없으니 무아입니다.

그러나 무상하다는 것도 무상이라고 딱 고정되게 생각하면 그것 또한 망견이 됩니다. 무상이라 한 것은 사람들이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주려한 가르침이지 무상이라는 또하나의 상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생사가 없다고 말할 때는 나고 죽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 열반을 말할 때는 열반이란 경계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했대서 '아하! 모든 것은 허무로구나!' 한다면 그것은 또하나의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걸 공견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법무아'라는 가르침은 집착할 대상이 없고 나도 없으니 다 놓으라는 가르침이지 있다는 집착대신에 없다는 집착으로 바꿔치기 하려는게 아닙니다.

공덕이 적으면 못깨칩니까

문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또한 어렵다고 했습니다. 생전에 법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 아직 인연이랄까, 공덕이 그런 계기를 만날 단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요?

〈장문형 · 서울 서대문 연희동〉

답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의 도리를 깨우치기까지는 누구라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뜻이니까요.

그런데 한 생 몸을 받아 태어나서도 그걸 모르고 육신의 쾌락이나 좇고 욕심이나 채우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를 잡아 이 공부를 해야 하겠지요. 그때까지 몇 생을 더 거듭해야 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애써 예까지 올라와 기회를 잡았는데 딴 생각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다가 다시 굴러 떨어져서 악도를 헤매다가 또 와야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도리를 알면 아는대로 행하고 모르면 모르는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해서 씨를 뿌리고 다시 과보를 받고 그 과보가 다시 씨앗이 되어 또 과보를 받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보면 언젠가는 도리를 알게되는 때가 있겠지요.

금생에 몸 받고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것만 해도 말씀하신대로 인연이 지중하고 그럴만한 과보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 그 좋은 인연을 다시 씨앗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과보가 어느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는 신경쓰지 마시구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삼선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삼선승가대학에서는 1997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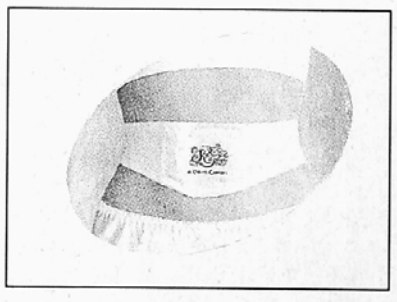
▶ **모집학과** : 사미니과 및 편입생
▶ **모집인원** : 사미니과 ○○명
편입생 각학년 ○명
(타 승가대학 휴학기간 2년 경과한 자)
▶ **전형일시** : 1997년 1월 31일 오전 10시
▶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승려 재적증명서
은사스님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승려증 및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증명사진 3매
본인 도장
▶**준 비 물** : 오조가사 장삼, 필기도구

삼 선 승 가 대 학 학장 지 광 강주 묘 순

연락처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55번지
전 화 : 02) 923-0582, 922-9652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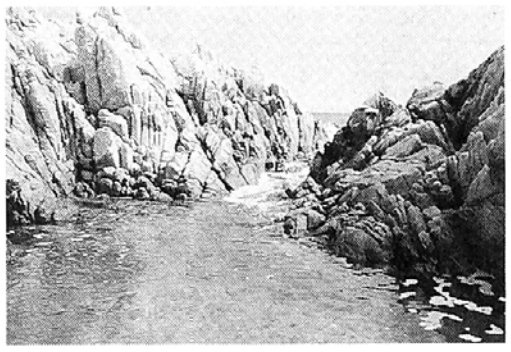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황룡사 대종 과연 찾을까"

경주시 내달 해저탐사…감은사대종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동해앞바다에 수장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황룡사대종을 찾기 위한 해저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9일 황룡사대종과 감은사대종이 수장된 곳으로 전해지는 경북 경주시 양북면 대왕암과 대종천 일대의 해저 및 강 탐사에 착수키로 하고 정부에 유물발굴 승인을 요청하는 등 내달부터 본격적인 탐사작업에 나서기 위해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 냇가를 이용, 동해 쪽으로 옮겨지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배가 전복되면서 문무대왕릉인 대왕암 주위에 수장됐다고 각종 문헌에 기록돼 있다. 실제로 〈삼국유사〉 제3권 '탑상' 편에는 '신라 경덕대왕이 천보13년 갑오에 황룡사 종을 주조했는데, 길이는…시주는 효정이왕(孝貞伊王) 삼모부인(三毛夫人)이며, 장인(匠人)은 이상택 하전(下典)이었다'라고 적혀있다.



◇황룡사대종이 수장된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 경북월성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의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 황룡사대종은 150t 규모로, 존재한다면 단연 세계최대의 종이다.

신라 경덕왕때 주조…몽고침입때 수장

구리 50만근 무게 에밀레종 4배 크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계단에 위치한 무게 202t 규모의 '차르콜로콜'. 그러나 이 종은 1937년 화재로 크게 손상돼 종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종은 미얀마 만다레이에 소재한 '민군'으로 무게 92t에 입지름 509cm 규모로, 황룡사대종과 비교하면 5분의3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제작연도와 규모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감은사대종도 임진왜란때 왜병들이 일본으로 운반하려다 배가 침몰하면서 사찰 부근 바다에 수장됐다고 전해지고 있어 황룡사대종과 함께 감은사대종 찾기에도 나선다.

경주시는 이미 해군에 탐사협조를 의뢰했으며, 필요할 경우 미해군의 협조를 얻는 등 적극적인 탐사작업을 펴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어 '문화유산의 해'에 동해바다에서 황룡사대종이 떠오르는 감격을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명우 기자

로 했다.

신라 제35대 경덕왕 13년(AD 754년)에 제작된 황룡사대종은 구리 50만근을 녹여 만든 거대종으로 높이 312cm 두께 27cm 무게149t에 달한다. 고려 고종 25년(AD 1238년) 몽고족의 침입 때 황룡사가 소실된 후 몽고군이 자국으로 가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종은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으로 높이 333cm 입지름 227cm의 규모다. 또 한국범종을 대표하는 상원사동종(국보 제36호)은 높이 167cm 입지름 91cm의 규모로, 황룡사대종은 성덕대왕신종과 비교해 4배나 크며 조성시기도 17년이나 앞선다.

선교양종 통합 업적 재평가

대륜불교문화硏 '태고보우 법통조명' 학술회의

보조국사와 비교평가 종조논쟁 지양해야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은 중국의 임제종 계통만도, 한국의 구산선문 종맥만도 아니며, 오직 선교양종을 통합한 고려 원융불교(圓融佛敎)의 초조(初祖)이자 한국 통불교의 시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태고 보우냐, 보조 지눌이냐는 식의 종조논쟁은 더이상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5일 태고종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이 주최한 '태고 보우국사 법통 재조명' 학술발표회에서 운제스님(전 태고종 총무원장)은 '태고 보우의 법통과 법손' 주제발표를 통해 태고 보우국사는 중국의 선맥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한국불교의 선맥을 형성했으며, 원융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종파나 교파에 속하지 않는 한국통불교의 초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제스님은 자종(自宗) 자파(自派)의 관념에 의해 지나치게 법맥을 따지는 종조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태고 보우의 선사상과 그 사적(史的) 위치'를 주제로 발표한 권기종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는 태고 보우국사는 간화선법을 본격적으로 수용, 새로운 선풍을 진작시켰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선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교수는 태고 보우가 보조 지눌에 비해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지나치게 법맥을 따지는 종조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춘교수(동국대 불교학)는 '태고 보우시대의 불교사회' 주제발표에서 여말 당시 보우국사의 불교개혁 추진과 이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돼 온 한국불교의 주류적 사상경향 및 그 문손관계 등에 비추어 한국불교 중흥조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 최성렬교수(조선대 철학)는 공통적으로 "태고 보우국사를 한국 통불교의 시조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답변에 나선 운제스님은 "현재 한국불교는 조계종, 태고종 등 여러 종파로 나뉘어져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통불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태고 보우국사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선·교 통합을 위해 노력한 보우스님을 통불교의 종조로 삼자는 것은 하나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은 이날 학술발표회에 이어 〈태고 보우국사 전서(전2권)〉 출판기념법회를 열었다. 〈우〉

"백제 금동광배 돌려달라"

지난해 임시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일반에 새로이 선보여 관심을 끌었던 백제 금동제 원형광배(圓形光背)를 원래 출토됐던 곳으로 돌려 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부여의 학계 및 관련기관, 단체와 주민들은 최근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287호)와 쌍벽을 이룰 만한 백제

부여시민·학계등 주장

금동제 원형광배를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지정과 함께 국립부여박물관으로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1년 부여 부소산성내에서 발굴된 백제 광배는 국내 유일의 금동제 광배로, 작으면서도 섬세하고 기법이 뛰어나 국보급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2만여 불서 색인·교양 강좌 눈길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가상불교도서관

불자네티즌의 교양을 높이고 스리랑카를 비롯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불학연구단체의 학술교류를 꾀하기 위한 사이버 불교도서관이 싱가폴에서 개설됐다. 지난 1981년 스리랑카의 불교교육을 증진시키고 불학연구의 심도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불자네티즌이 방문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가상불교도서관'은 지난 1993년에 개설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불교도서관 소장도서에 관한 '색인어' 검색이 가능해 불서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불교도서관은 매월 3천여명이 도서관을 방문해 경전·철학·명상·예술 등 2만여권의 불교도서를 열람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양철학·서양종교학·비교종교학·언어학 등과 관련된 도서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사이버 불교도서관은 교양강좌를 개설해 놓고 매월 15회 이상의 강연을 갖고 강연회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강의록은 △석가모니 부처님 △사성제 등이다. 'http://sunflower.singnet.com.sg/~buddhlib/' 〈욱〉

法數로 배우는 불교 ②

일념

백장청규(百丈淸規)로 유명한 당나라때의 고승 백장회해(百丈懷海)선사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눈을 떴다.

낮 같으면 시자를 불러 물을 가져오라고 시켰겠지만 깊이 잠들어 있는 시자를 깨울 수 없어 선사는 망설이다 그냥 자리에 다시 누웠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선사가 일어나 문을 여니 뜻밖에도 잠들어 있을줄 알았던 시자가 끓인 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닌가. 괴이하게 여긴 선사가 "네가 어찌 알고 나에게 물을 끓여 왔느냐"고 묻자 시자는 "누군지는 몰라도 잠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물을 끓여 큰 스님께 갖다 바치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백장선사는 손가락을 튕기며 '아차 내가 한 생각들을 내면으로 돌이켜 집중된 한 생각으로 만드는 일은 불교수행의 공통된 과제인 것이다. 일념(一念)으로 염불하고 일념으로 절하고, 일념으로 참선하는 것이 나중에는 생활속에 젖어들어 자고 먹고 일하는 속에서도 지속된다면 그는 부처님을 향해 곧장 가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세력이 붙어 나 인과를 초래케 하고 얽매임을 가져오게 한다.



◇현정 作.

일념이라는 글자를 불경에서 쓸 때에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중생들의 일고 꺼지는 한 생각 한 생각 그 자체를 들어서 말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그와는 반대로 일고 꺼짐이 없이 일관되게 하나로 집중되어 흩어지지 않는 상태의 마음을 말할 때가 있다.

앞의 일념이 불법을 수행하지 않는 일반 중생들이 쓰고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마음작용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뒤의 일념은 불법을 닦

동요없는 영원한 마음

일어나는 생각 늘 살피고 안으로 집중

보고 듣는 경계 끄달리면 인과 얽매여

그만 헛수행을 했구나. 한순간에 내마음(一念)을 단속 못하고 흘려 보내어 토지신에게까지 들켜 이 지경에 이르다니…' 하고 탄식을 하였다고 한다.

이 일화는 중국선사들의 전기와 법어를 기록한 〈조당집(祖堂集)〉에 나오는 얘기이다. 우리들로서는 백장선사가 토지신의 보호를 받을만큼 도력이 높은 분으로 여겨지겠지만 정작 백장선사 자신은 그것을 오히려 큰 수치로 여긴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의 마음이란 생각생각이 대상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항상 살피고 안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백장선사로서는 이점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하면서 실천했던 것이다. 밥먹고 일하고 예불드리고 좌선하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마음 관리를 철저히 할 줄 알 때 수행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분은 보았다.

인간의 마음은 선천적으로는 늘 보고 듣는 경계를 따라 흐르고 움직인다. 수행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차단시키는 작업이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도 실은 이곳에 초점이 있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한 생각는 수행자가 참선을 한다든가 염불을 한다든가 하여 마음이 안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천태학이나 화엄학에 의하면 중생들의 일념은 그것이 앞서의 두 측면처럼 순간적이든 지속적이든을 막론하고 일념 그 자체속에 세상의 모든 법이 다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천태학에서 말하는 일념삼천(一念三千)설과 화엄학에서 말하는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설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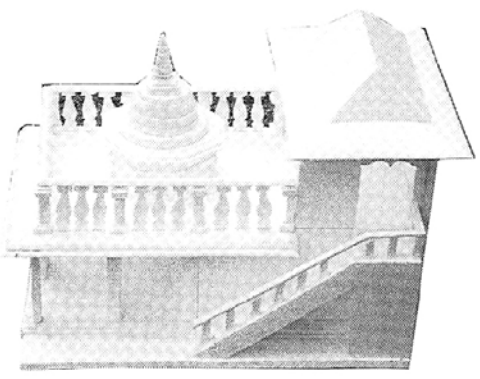
누구라도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비추어보는 수행을 거듭할 것 같으면 필경에는 깨달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의 모든 수행이란 결국 이러한 '일념'을 바로 지키고 비추어 자신의 일념 내면속에 깃들어 있는 참부처를 친견하는 일이다.

한 생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일념은 이렇게 누구나 지니고 있고 쓰고 있는 것이지만 향하는 바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건립 모연문

스리랑카 불사리탑



전 국민의 75% 이상이 불교신자이며 불교원전이 유일하게 보존된 불교국가 스리랑카의 씨암종의 한 사찰에서 가난하지만 신심이 돈독한 불자 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일요법회 교실(학생수 300名) 짓고 옥상에 사리탑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중단상태에 있어 같은 승려로서 보고 있자니 마음아파 뜻있는 불자님들께 호소하여 값진 보살행을 권해드립니다. 국적도 다른 미안마의 청정비구승이 주지로 계시는 절이니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이국 불자와 이 스님에겐 큰 힘이 될 것이며 값지고 보람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사리탑 건립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필요하신 사찰이나 패엽경(스리랑카 국보급)을 모시고 싶은 스님께서는 연락주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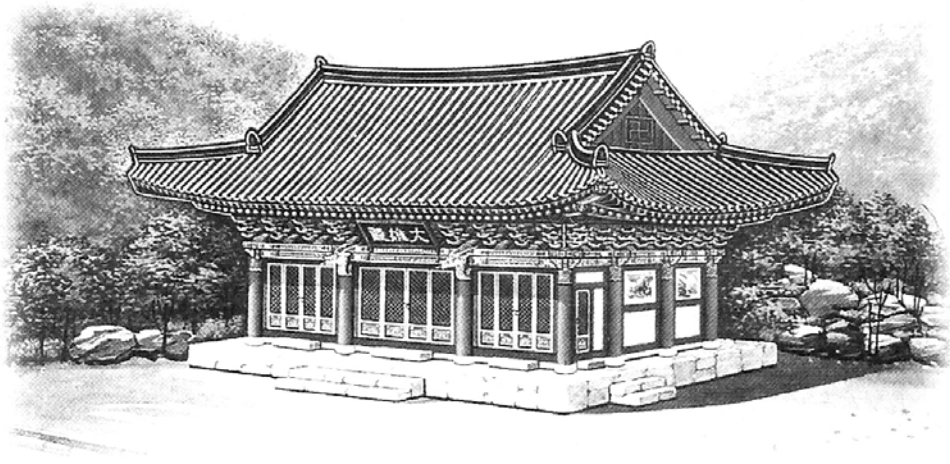
● 국내 연락처 : 경남 마산시 두척동 대운정사 지운 합장
Tel : 0551-91-0082

● 스 리 랑 카 : VEN. B. CHANDRAMONY
THERO SRI RATNAVIHARA - INTERNATIONAL
IRIYAWETIYA, KELANIYA. SRI LANKA
Tel : 001-94-1-911-875
구좌번호 : PEOPLES BANK 104333
예금주 : VEN. CHANDRAMONY

장엄불사 조감도

스님의 생각을 현실로 표현해 드립니다.

(주)두풍은 찬란한 불교 문화를위한 전문업체 입니다.



(주)두풍산업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완벽한 기획, 설계, 디자인으로 확실한 조감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불,사찰건축,건설전문업체

doo poong 株式會社 斗豊産業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8 (두풍 B/D)

대표 02) 432-7777
전화 02) 439-3900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5〉

美 프랭크 오스타세스키

"보살행은 죽음마저 이기게 해요"

불교간병인협 설립 국제적 활동
에이즈·암환자등 10만여명 돌봐

無常·無我 가르침 토대 간병활동 수행으로 승화
"소외감이 불치병보다 더 큰 고통…사회의식 계도"

미국의 불교시사잡지 트리사이클지의 편집위원 스티븐 레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병인단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간병인교육 및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프랭크 오스타세스키가 설립한 불교간병인협회"라고 밝혔다.

'불교간병인협회' 회장 프랭크 오스타세스키(Frank Ostaseski)는 여느 불교 실천운동가와는 달리 서구의 정규교육을 받은 미국인으로서 '보시공덕'의 한 방편인 간병활동을 전개해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불교실천운동가이다.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캘리포니아大에서 수학했던 23세 전후부터였다. 캘리포니아大가 들어선 샌프란시스코의 만(灣) 지역은 미국에서 불교관련 학술·문화행사가 빈번히 열린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는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동양의 고대 정신문화를 향유했다. 또 1973년부터 동남아 불교국의 성지순례를 시작해 여행을 통해 범신론적 바라문 사상의 정계(正系)인 베단타(vedanta)와 불교 등을 배우고 불제자로 성숙해졌다.

이후 그는 잭 콘필드(Jack Kornfield)와 함께 명상공동체(美, Meditation Society)를 설립해 본격적인 명상수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명상수행에 정진하는 동안 부모와 사별한 청소년기에 겪은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때부터 '죽음'과 '죽어가는 것'을 화두로 삼았고 간병인활동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청소년기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든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통받는 환자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동안 만큼은 사별(死別)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그제서야 '죽음·죽어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보살행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됐다"고 오스타세스키는 말했다.

수년동안 남미(南美)계 망명자·거리 부랑자·무의탁노인들과 함께 지내며 이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사회적·정치적 운동에 전념한 그는 78년 샌프란시스코 선원의 후원을 받아 간병인단체(The Victory of House)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보시공덕'의 사상적 근간을 갖게 됐다.

이 단체를 설립했던 80년대는 에이즈(AIDS)가 한창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었고, 에이즈감염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그랬듯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었다. 오스타세스키는 "부처님 재세(在世)시대에 오늘날처럼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더라도 설법을 듣는 군중들 가운데에서 에이즈 감염자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을 정도로,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에이즈 환자도 인간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1992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6년동안 간병활동을 벌여온 간병인단체를 해체하고 불교간병인협회(Zen Hospice Project)를 설립했다. 현재 美·英 등지에 본부와 지부를 설치해 국제적인 단체로 성장한 이 협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만도 1천5백여명의 '불교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이 성별·종교·민족 등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껏 10만여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곳 환자들은 대부분 에이즈(70%), 암(20%) 등의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전체 환자들의 65%는 연고자가 없다.





◇샌프란시스코의 라구나 혼다(Laguna Honda)병원에서 에이즈 감염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자. 이 병원에서는 불교간병인협회 소속 28명의 간병인이 자원봉사하고 있다.

약 력

- 1950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
- 1968 캘리포니아大 수학
  서베이에서 불교활동 시작
- 1973 동남아 불교국 성지순례
- 1975 잭 콘필드와 '명상공동체' 설립
- 1987 '간병인단체'(The Victory of House) 설립
- 1992 '불교간병인협회'(Zen Hospice Project) 설립

저서로는 〈불멸의 사랑〉(An Undying Love) 등이 있다.

호스피스(Hospice)란 치유의 가망이 없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 호스피스는 간병인이 환자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환자의 죽음에 대한 공포·불안·고독감 등을 완화시키고 최후의 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면서 가치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는 간병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병인의 자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에서 불교간병인협회가 주목받게 된 것도 간병인 지원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주고 이들의 정신적·기능적인 소양을 성숙시켜 환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간병인들은 대다수 불교선원을 다니는 20세부터 75세까지의 불자들로 폭넓게 구성돼 있다. 이들 중에는 임상의·간호·수술 등의 전문분야를 교육받은 사람도 있으며 은행원·법조인·사업가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오스타세스키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돌봐주는 동안 우리는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요소며 여기에는 간병인과 환자의 위치는 없다. 오직 인간적인 친밀감이 있을 뿐이다"라며 간병활동을 불교수행으로까지 승화시켰다.

협회교육을 이수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라구나 혼다(Laguna Honda)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마리안씨(美·58)는 "교육을 통해 자비심이 일깨워지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있다는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교육을 평가하고 "자비심이 바로 환자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쏟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행으로 승화된 간병활동은 병마와 싸우는 환자의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마련해 준다. "먹고 배설하는 것조차 간병인이 도와주고 있다. 간병인의 사랑으로 둘러싸인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며 스텔라(美, 52)는 따뜻한 간병에서 자비를 느꼈다고 말했다. 다섯 자녀를 둔 마가렛(美, 42)은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지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신체적 접촉을 몹시 꺼렸다. 심지어 자녀들조차 멀어졌다. 그러나 협회는 간병 뿐만아니라 에이즈에 대한 가족들의 선입관을 변화시켰다"며 병을 치유하는 의학적인 조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까지 되찾아주는 호스피스의 활동에 고마워했다.

"부처님 가르침인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대하는 간병인에게 특별한 교훈을 준다. 왜냐하면 간병은 바로 생·노·병·사 중에서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해주며, 이를 통해 간병인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스타세스키씨는 왜 불자들이 간병활동을 펴야 하는지 해답을 준다.

오종욱 기자

나의 수행일기

이 재 순 〈건국대교수·기계공학〉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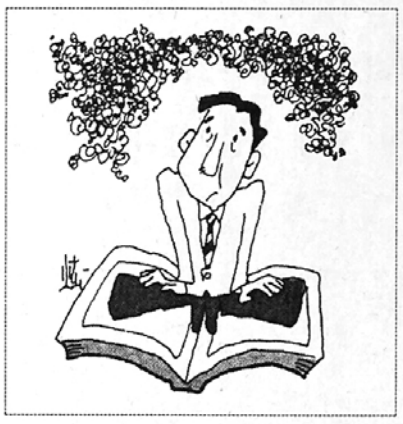
"이웃에게 쉽게 불교전하자" 발심

여러종교 곁눈질후 비로소 최상진리 불법귀의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타심통(他心通 다른이가 생각하는 것을 모두 자유자재하게 아는 것)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우스운 일이다. 내가 나의 마음도 잘 헤아리기 어려운데 남의 마음을 알고자 했으니 말이다. 하여튼 나는 '타심통'이라는 능력에 관심이 지대했다. 나는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병기공학(무기를 개발하는)을 공부하였다는 인연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창설과 더불어 국과연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10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83년부터 현재의 대학(건국대학교)으로 옮겼다. 대학으로 옮기니 시간이 한가롭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첫 여름방학에 과학기술원 동료교수의 소개로 통일교회가 주최한 3박4일간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리강좌를 들었다. 그러나 그 강좌엔 내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타심통 같은 교리는 없었다. 그 후 밀교계통, 원불교 경전, 대순전경 등을 섭렵하였다. 그러한 긴 여정 끝에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됐다.

84년인가 집사람(韓 法界藏)이 강남에 능인선원이 개원되었다고 하면서 가보라고 하여 이 선원에 다니게 되었다. 그곳에서 전관응 큰스님(직지사 조실)을 모시고 법화경 강의를 받았다. 인연설화를 섞어가면서 열심히 법문하셨는데 정말 신심이 났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다녔고 3기로 졸업하였다. 공부를 마치니 그 망망대해만 같던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이 형성되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갔다. 능인선원에 다님과 동시에 인천 용화사 송담스님의 법문도 빼놓지 않고 들었다. 송담스님은 초지일관 선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시심마(이뭣고)' 화두와 '취봉(翠峯)'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송담스님은 참선 수행, 호흡법뿐만 아니라 '활구참선'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하는 참선방을 찾게 되었고 사간동 법련사에 나가게 되었다. 참선방에 앉아서 정진한다고 하였지만 온갖 잡념과 씨름하다 돌아오곤 하였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했다. 불교란 없는 이론을 새로 누가 만든것도 아니고 이 법계에 있는 진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알려준 것인데 어떻게 불교이론은 이렇게 어렵고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안되는가 하고 말이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불교를 믿겠는가? 내가 좀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야겠다고 발심했다. 사(事)적으로는 어렵지만 이(理)적으로는 왜 어렵느냐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때에 각성(覺性)스님이 삼일 선원에서 원전으로 강의를 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삼일선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삼일선원에서 많은 것을 공부했다. 화엄경, 기신론, 대학, 중용, 원인론, 능엄경 등. 어릴적 서당에 다닌 인연을 기억하면서 불교원전으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특히 3년에 걸친 능엄경 강의는 인상깊었다.

과학도인 내게 능엄경은 정말 논리정연하다고 느껴졌으나 '여래장의 묘진여성'이라는 구절에서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래서 닦는 방법으로 이근원통이 제일 좋다는 말을 듣고 이근원통(耳根圓通)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또 묻고 한 기억이 난다. 다른 근(根)은 전부 800근인데 눈, 귀, 마음(제 6식)은 1200근으로 눈은 깜박깜박 움직이고, 마음은 걷잡을 수 없지만 귀는 움직이지 않는지라 이근원통이 제일 수승한데 아주 소란한 역대합실 같은 곳에 가서는 듣는 놈을 뒤잡아서 도로 들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아주 조용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여도 실제행이 되지 않아서 짜증스럽기까지 하였던 기억이 난다. 불교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해도해도 끝이 없다면 어쩌나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고 또 들었다. 막막하기만 한 무명을 뚫기 위해 수행단체의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곤 하였다.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크기 3.5cm×10.5cm

■ **보급방법** :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㉘

甚麼是老用心的難呢
심마시노용심적난니
老用心用到眞疑現前的時候
노용심용도진의현전적시후
有覺有照 仍屬生死 無覺無照 又落空亡
유각유조 잉속생사 무각무조 우락공망
到這境地實在難
도저경지실재난
很多到此瀟不脫 立在百尺竿頭 沒法進
한다도차쇄불탈 입재백척간두 몰법진步的
보적

어떤 것이 오래 공부한 이의 어려움인가.

오래도록 마음공부를 했다는 것은 참된 의정이 현전해 있는 때이다.

깨우침도 있고 비춤도 있다면 그대로 생사에 있음이나 깨우침도 없고 비춤도 없다면 무기공에 빠진 것이라.

이 경지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흔히 여기에 이르면 쇄락함에서 벗어나지 못해 백척간두에 서서 진일보할 줄 모르게 된다.

有等因悟到了這境地 定中發點慧
意義
의의
便以坐在枯木岩爲極則
변이좌재고목암위극칙

또 어떤 이들은 달마조사의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는 끄달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마치 장벽 같아야 도에 들수 있다'는 말을 잘못 알고는,

(또) 육조대사의 '선도 생각치 말고 악도 생각치 말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느것이 눈 밝은 이의 본래면목인가'라는 말뜻 잘못알아서는,

문득 나무 등걸이나 바위처럼 앉아있는 것으로 구경을 삼는다.

這種人以化城爲寶所 認異地作家鄕
저종인이화성위보소 인이지작가향
婆子燒庵 就是笑此等死漢
파자소암 취시독차등사한

이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그림자성(신기루)을 보궁으로 알고 타향을 제 고향으로 여기는 것이니

노파가 암자를 불태운 것도 바로 이

"더 면밀하게 더 미세하게 공부해야 시절인연 도래하면 참된의정 나와"

유등인위도료저경지 정중발점혜
領略古人幾則公案 便放下疑情
령략고인기칙공안 변방하의정
自以爲大徹大悟 吟詩作偈
자이위대철대오 음시작게
瞬目揚眉 稱善知識 殊不知已爲魔眷
순목양미 칭선지식 수부지기위마권

어떤 이들은 이런 경지에 이르르매 정 가운데서 한 점 지혜를 일으켜

옛 사람의 몇몇 공안을 알아채고는 문득 의정을 놓아버리니

스스로 크게 사무쳐 크게 깨달았노라 하며 시를 읊조리고 게송을 짓고

눈을 끔쩍이고 눈섭을 치켜 올리며 자칭 선지식이라 하면서 저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군의 권속이라 한다.

又有等錯會了達摩老人的
우유등착회료달마노인적
'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牆壁 可以
외식제연 내심무단 심여장벽 가이
入道'
입도
和六祖的 '不思善 不思惡
회육조적 불사선 불사악
正與麼時那個是明上座本來面目'的
정여마시나개시명상좌본래면목 직

같은 죽은 공부하는 놈들을 꾸짖은 것이었다.

甚麼是老用心的易呢
심마시노용심적이니
到這時只要不自滿 不中輟
도저시지요부자만 부중철
綿綿密密做去 綿密中更綿密 微細中更
면면밀밀주거 면밀중갱면밀 미세중갱微細
미세
時節一到 桶底自然打脫
시절일도 통저자연타탈
如或不然 找善知識 拙釘拔楔去
여혹불연 조선지식 추정발설거

어느 것이 오래 공부한 이의 쉬움인가

이때에 이르면 다만 자만하지 않아야 하고 중간에 걸어치우지 않아야 하며

면면 밀밀하게 지어나가되 면밀한 가운데 다시 더 면밀하게, 미세한 가운데 다시 더 미세하게 해나가야 한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통 밑바닥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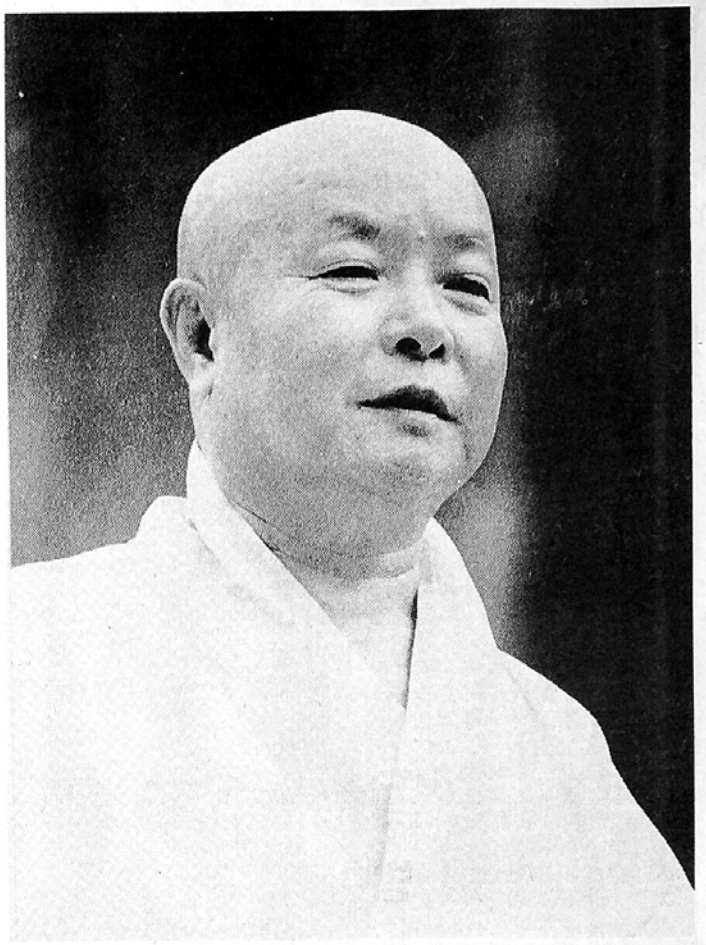
혹 그렇지 않다면 선지식에 의지해 못을 뽑고 문설주를 걷어내야 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사람과 자연은 한 뿌리

어둠짙은 수덕사에는 고요함과 함께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콧산인 덕숭산에 둘러싸여있는 고풍스러운 수덕사는 백제시대 고찰의 위용을 자랑하며 고즈넉히 서있다. 선본종찰 덕숭총림의 모든 법 나오는 근본이요 끝이라는 서래(西來)가풍을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방장 원담큰스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수덕사 일주문을 비켜 돌아 솔숲을 따라오르면 새로 지은 방장실이 편안한 자태로 앉아있다. 1933년 12세에 동진출가하여 62년간 수행에 진력해온 원담스님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다정하게 반겨주었다. '어디서 왔는가?' '공양은 했는가?'



원 담 스 님 〈덕숭총림 방장〉

"네 마음 고향어디냐" 만공스님 주신 말씀 아직도 화두

새해들어 사람들은 저마다 희망과 바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새해임에도 뭔가 좋은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고 그윽한 생각을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생은 해가 바뀌든지 달이 바뀌든지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나까 새해에 달라지기를 기대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더 잘 아는 마음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막상 해보면 꽉 박힙니다. 꽉 막힌 그 자리 모르는 그 놈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인 것을 끌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참선이라고 합니다.

옛 조사스님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깨닫고자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신일 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불입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세우지 않고 또 그 문자에서 가르치는 진리 즉 마음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허공꽃의 어지러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마음 속에 지닌 부처님 뿌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이다 지쳐 집에 돌아와 담 넘어 매화가지에 서 꽃망울 터진 것을 보고 봄이 옴을 느꼈다고 하듯이 실로 우리는 공기속에 살면서 공기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스스로 몸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밖에서 진리를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만인이 귀착해야 할 깨달음은 멀리서 다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12세되던 해였습니다. 수덕사 견성암 도명스님이 속가 이모이셨습니다. 스님따라 절구경왔다가 지금까지 온거지요. 이곳에 와서보니 어린 마음에도 세상에서 제일 살기좋고 잘사는 사람이 스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공(滿空)스님을 뵙고 그대로 출가했습니다.

약력
- 1927년 12월 1일 충남 서천 生
- 1933년 수덕사에서 벽초스님을 은사로 출가
- 1970년 수덕사 주지역임
- 5·7·8대 조계종 중회의원
- 1989년~현재 수덕사 덕숭총림 방장
- 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찾는 것만이 평화찾는 길이요 불교의 정법을 찾는 길 입니다"

만공스님을 처음 뵈올적에 생각이 나는군요. 머리는 하얀 노만공스님이 "어디서 왔느냐?"물으세요. "충남 서천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서천의 고향은 어디냐" 또 물어요. 무슨소린지 모르고 "역시 서천입니다" 하니 껄껄껄 웃으시며 "내가 묻는 뜻은 네 몸땡이 생긴 고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마음 생긴고향이 어딘가를 묻는 것이다"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상당히 뜻이 깊은 말씀인지를 알고 지금까지 화두로 들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나를 찾는 것이 불교의 골자를 찾는 것입니다. 불교를 똑바로 찾으려면 나를 찾아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찾는 것만이 평화를 찾는 길이요, 고향을 찾는 길이요, 불교의 정법을 찾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찾을 생각보다는 밖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애를쓰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경허스님께서 주석하시던 天蔣寺(천장사)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혜사에서 공양주·채공을 할적에 하루는 벽초(碧超)스님께서 나를 불러 이르시기를 "만공 큰스님께서 네 시봉을 받고 싶다 하시니 잘 모시거라" 하는지라, 그날로 전월사(轉月寺)에 올라갔습니다. 만공스님을 시봉하게된 인연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지요. 큰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며 공부하고싶던 차여서 기쁜 마음에 큰스님을 부처님처럼 모시며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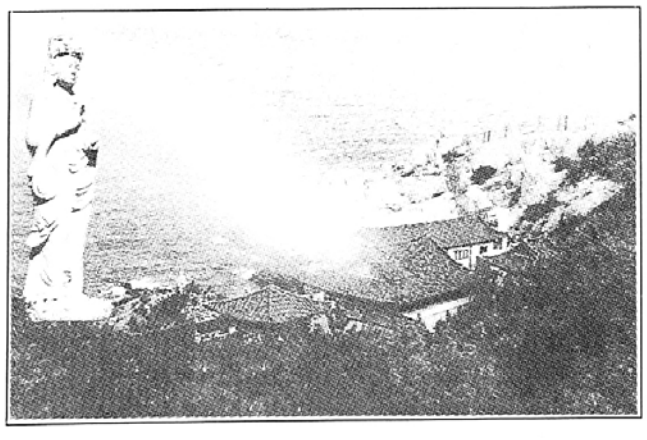
요즘 수행납자나 불자들이 간혹 찾아와 공부하는 법을 물곤합니다. 그때마다 만법귀일(萬法歸一) 의 화두(話頭)를 짊어졌던 옛생각이 절로 납니다.

예전에 천장사에서부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어쩌구 하던 그것이 궁금했는데 하루는 어느 선객스님이 큰스님을 찾아와 화두를 타는데 몹시 궁금한지라 부엌에서 일하다 말고 귀를 쫑긋세워 들었습니다. 만공큰스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 한 중이 조주화상에게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萬法歸一 一歸何處)' 하고 물으니,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묻지 않겠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란 무엇인가(萬法歸一 一是甚麻)"라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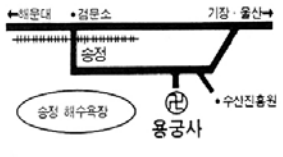
선객스님이 돌아간후 큰스님 방에 들어가 "저도 이제부터 참선을 할랍니다"하니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① 722-7755

연화합창단 창단 1주년 기념!
해동용궁사 寺歌 현상 공모

기도영험도량 해동용궁사에서는 연화합창단 창단 1주년을 기념하여 용궁사 사가(寺歌)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응모기간 : 1997년 1월 31일까지
◇ 응 모 처 : 해동용궁사 연화합창단 단장
◇ 응모내용 : 작사(가사 1·2 절)
◇ 사찰특징 : ● 태백산맥 연화산 ● 배산임수 관음기도도량
● 해수관음대불 ● 아침일출
● 108계단 ● 반월교
◇ 발 표 : 1997년 2월 10일(음 1월 3일) 교계 신문에 공고
◇ 시 상 : 1997년 2월 22일 (정월대보름)
●당선작 1名 상금 100만원 ● 가작2名 상금 각 30만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 동 용 궁 사
619-90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16-3
051)722-7744,7755 FAX 7333

큰 스님 수행한담

조화이룰 때 평화와요"

"광복맞아 무궁화 꽃잎에 먹 묻혀 '世界一花' 휘호하신 만공스님 뜻 온 인류가 함께 해야 할 정신입니다"

예의 그 화두를 내려 주시고는 "어디 한번 잘 해보거라"하시며 빙그레 미소지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후 나름대로는 참선합네하고 떠벌였지만 실상은 거의 잊고 살았는데 하루는 큰절에 내려오니 어느 스님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팔상록(八相錄)〉을 주셔요. 몰래 전월사 뒷방에서 읽고있는데(만공스님께서 책 보는것을 엄히 경계하시던 터라) 만공스님께서 문을 열어보시더니 아무말 없이 그냥 가시는 겁니다. 쫓아가 무릎꿇고 참회를 드리니 "네놈이 참선을 한다고! 저 아랫마을 강아지가 성불하면 했지, 네 놈은 성불할 수 없겠다. 차라리 염불이나 배우고 선업을 쌓는것이 좋겠다"하시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절망속에 죽고싶은 마음밖에 안들었습니다.

이왕 죽을바에는 나도 한번 참선이라도 잘 해보고 죽어야 겠다는 분심(憤心)이 일어나 그전 화두에 대한 새로운 의심이 솟아나더라 이말입니다.

만공 큰스님께서 항상 "참선을 옳게 잘 하려면 천연의 의심이 돗발해야 하느니라"하시었는데 아마 그때 나도 천의(天疑)가 비로서 돗발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 만공스님 추상같은 꾸지람을 듣고는 "성불 못할바에는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생각했어요. 그래도 이왕 죽을 바에는 보나 사람들이 공포심 분노심 불평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 사는 동물 식물까지 모두 "평화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평화가 오고 비로소 한 뿌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일화'의 정신이야말로 온 인류(人類)가 함께 받아 안아 실천해야 할 정신이라 믿습니다.

만공스님께서는 열반직전에 최후설(最後說)을 통해 "내 법문이 들리지 않을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내 면목(面目)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니라" 하시었다하니 실로 큰스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가장 인간다운 분이요, 인간의 진면목이시고 또 허공과 같으신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허공이 어디 없어지고 말고 할것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 생사를 벗어나는 대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지고도 멋진 일입니까? 이미 그 깨달은 경지에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하나도 남음이 없는 것입니다. 들어도 들은 바없고 보아도 본 바 없는 가운데서 자기일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충실하되 보는 놈, 듣는 놈, 먹는 놈, 입는 놈 그 놈을 똑똑히 보면 '그대로 여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달마조사가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게하라'하신 그 뜻입니다. 그리고 '놓아 버리는 것'이것이 지름길 입니다.



◇덕숭산 동편 산정에 한칸 초당 전월사 정원에서 만공스님(사진 중앙)이 시자들과 함께 찍은 최후의 사진. 오른쪽 끝으로부터, 원담, 수업, 성오, 수련스님 이다.

"생활에서 깨달음 찾되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집착때문에 방황과 고통…방하착해야 벗어나

부처님께서 한 때 고요한 곳을 거니시며 생각하고 계셨는데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려고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려라" 하셨답니다. 그러자 바라문은 오른손에 들었던 꽃을 놓아 버렸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려라"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바라문은 왼 손에 들었던 꽃을 놓아 버렸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또 "놓아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은 멍청히 서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바라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과 사고와 주관적 판단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세속적인 것에 착심해서 살고 있습니다. 삶에 어지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탐 진 치 삼독에 가득 물들어 있습니다. 많은 중생들이 탐 진 치심에 삶이 쏠아져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4대가 흩어지고 안광낙처시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는 것입니다. 불나비가 제 죽을줄 모르고 불속에 뛰어 드는 것과 같고, 예리한 칼끝에 묻혀져 있는 꿀을 빨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모양지어진 것에 집착해 보지만 잡으려들면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끝없는 방황과 착각과 고통에서 허덕일 뿐입니다. 답은 부처님이 주셨듯이 방하착(放下着)하십시오. 진실로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이 나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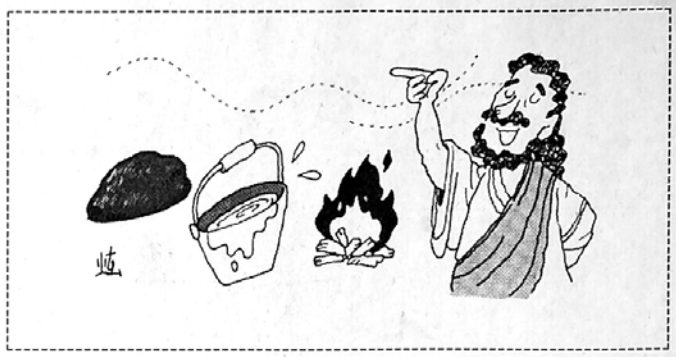
입산후 행자생활을 무려 5년 가까이 하였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상좌를 삼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 정한 스님이 있습니다"하고는 버틴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만공 큰스님께서 조용히 불러 이르시길 "네가 이제 은사스님을 정하야 할터인데, 내 생각에는 벽초스님이 선지가 밝으니 그 스님을 은사스님으로 하여라"하시는지라, 벽초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만공스님께서 계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은사이신 마벽초스님은 힘이 장사이신데다 일하는 방법을 알아 웬만한 도편수 저리 가라는 식으로 온갖 대소불사를 주관셨으며 선지에도 뛰어나 선농일치의 삶을 살아오신 '한국의 백장스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스님은 일을 수행으로 삼으셨습니다. 항상 양손에 소가 먹는 여물을 들고다니셨어요.

만공 큰스님이 내 법의 스승이라면 벽초스님은 내 중노릇하는 삶의 스승이셨습니다. 만공스님께서 열반에 드신후 비로서 처음으로 몇해를 전국 곳곳을 유력한 적이 있습니다.

통도사 극락선원을 찾아가니 경봉스님께서 "어데서 왔는고?" "덕숭산에서 왔습니다." "스님은 누구 누구시냐?" "송만공스님 입니다." "만공스님께서 무슨 법을 보여주더냐?" 하시기에 두주먹을 쥐고 손을 높이 쳐들며 "이것을 뵈어주리다. 스님께서도 이것이 있습니까?"하니 허허 웃으시며 앉으라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나 말고는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 말고는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를 찾는 것이 곧 자기를 찾는 것이요, 자기를 찾는 것이 곧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마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결제요 해제를 뜻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지요.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00

박 순 달

4大와 原子 ②

연금술(alchemy)이란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기술이다. 고대 이집트의 흑토(Khem)에서 나온 이름으로 이곳에서는 일찍부터 연을 생산하여 이것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기술을 연마해왔다. 중국은 기원전 4세기에 벌써 수은화합물을 다루는 연단술이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더 왕이 동방원정을 할 때 참가했던 프토레미 장군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란 도시를 만들었다. 이 도시는 50만 권의 책을 보관하는 대도서관을 만들어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가 됐다. 이 도서관에는 3세기경 조시모스가 저술한 가장 오래된 화학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인조보석을 염색하는 법이 서술되어 있다.

아랍 연금술사들은 물과 흙으로 수은이 생기고 불과 공기로 황이 생긴다음, 이 수은과 황이 혼합되어 금속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이런 연금술은 후에 수은이나 납으로 금이나 은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많은 연금술사들은 비금속에다 어떤 특별한 물질을 섞으면 금이 되는 물질을 발견하려고 했다. 이 물질을 '철학자의 돌', '현자의 돌'이라고 불렀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자 연금술은 점차 미신, 사이비학자, 점성술과 결탁하여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비록 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연금술은 그 후 금속을 다루는 기술의 초석이 됐다. 지하자원의 금속을 생산하는 기술로 발전하기도 하고 특히 귀금속을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요사이는 자연 상태에서 물질이 변화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인공적으로도 물질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고대 그리스는 일찍부터 학문이 발달하면서 물질에 대해서도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원전 6, 7세기 이하학의 시조이자 그리스 과학의 시조인 탈레스는 "세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물이라고 대답하였다. 즉 만물을 이루는 기본물질은 물이라고 하였다. 아낙시메네스는 기본물질은 공기라고 하였고 희박하면 불이 되고 농축하면 물이 되고 고체가 된다고 생각했다. 기원전 5, 6세기 헤라크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했다. 그는 유전사상을 제창하면서 "만물은 운동하고 변화를 그치지 않는다. 불은 끌없이 순환하여 더 나은 형상으로 간다. 불을 물로 끄면 불은 물로 바뀌고 물 일부는 불의 정(精)으로 변하여 하늘로, 일부는 흙으로 돌아 간다. 그리고 흙에서 다시 물이 생기고 물에서 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들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되어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4원소설이 정립된다.

4원소설이란 물질의 기본은 네 가지 물질인 흙, 물, 불, 공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로써 엠페도클레스는 인체 구성비를 설명하면서 뼈는 불, 물, 공기가 4대 2대 2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피와 살은 각각 1대 1대 1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무가 불타는 것은 불이 붙어 연기(공기)를 내고 나머지는 흙이 되며 이 때 수증기(물)가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4원소가 4가지 성질(溫, 乾, 濕, 冷)에 대해서는 흙은 차갑고 건조한 성질, 물은 습하면서 차가운 성질, 불은 뜨겁고 건조한 성질, 공기는 뜨겁고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4원소설이 정립된 뒤 서양에서는 중세까지 유지됐다. 로마시대에는 순수 과학보다는 토목, 건축이 발달하였는데 예로 도로, 아취식 구조의 수도시설 등 많은 건축물, 많은 병기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물질이론에 발전이 있었다면 로마시대 루크레티우스가 저술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란 책과 15세기 과학자 파라켈수스는 모든 물체도 불로 태우면 유황, 수은, 염으로 나누어진다는 3원질론을 주장했다는 정도이다.

원시불교시대의 4대론과 그리스시대의 4원소설은 같다. 4대론은 기원전 6-8세기경에 완성되어 불교이론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됐다. 한편 그리스는 기원전 4세기경에 4원소설을 완성하는데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이 3세기경이므로 그 이후부터 인도와 그리스의 학문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서울대 · 산업공학과〉

고대 그리스 물질관

4원소론 원시불교 4대론과 상통

인도-그리스 3세기 이후 학문교류

1997학년도 제6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교육 · 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믿음을 성취하고
인격적 신행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무량광대한 법사의 길을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열어 갑시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 거쳐)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 ·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 · 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 · 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1월 29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2026~8** 광주 삼복서점 :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제일서림: **424-0801**, 대전문경서적: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림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홍지서림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고은 불교대하소설



110

변해서 사라지는 것 말고 어떤 것이 진리이던가 우녀는 화엄법계 보배구슬들의 찬란한 교호를 보고 있었다

천상 도리천의 합두 그리고 붙이 외의 몇마디 주고 받은 말은 정녕 헛된 수작인가? 헛되다면 어린 시절의 어느 밤에 꾼 꿈속의 일을 깡그리 잊어버려서 그때 그런 꿈을 꾼 적도 없는 것 이상으로 헛된 수작인가?

그동안 우녀는 이것도 저것도 무릇 헛되다고 가르쳤다.

아니, 헛된 것, 변하는 것, 변해서 사라지는 것 말고 어떤 것이 진리이던가?

무욕도의 사람도 있다가 없다가 함이 헛된 바를 일깨워주고 무욕도의 사람이 아직까지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 머물러 있는 그것대로 헛된 바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녀가 하늘의 공간과 지상의 공간에 조금도 차별없이 지난 날의 사람과 몇마디 나눈 것은 그것이 아무리 헛되다 할지라도 그 헛된 것을 쉽사리 물리쳐 버릴 수 없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윤회야말로 공부라고 말한 것도 윤회의 헛됨을 뒤집어서 그 헛된 세상을 깨닫는 일을 뜻한다. 그렇다면 합두들과의 몇마디 말도 구름 위의 이웃이라는 허허로운 공간의 일이기는 하나 방금 지나쳐 온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그녀의 얼굴을 덥게 하는 것이었다.

파도소리가 유난스레 큰 목청을 내어 마치 다른 소리들을 다 제압하려는듯이 들리는 밤이었다. 진작 잠든 소석행자는 그 고른 숨소리조차 들려주지 못하게 파도소리에 파묻혀 있었다.

우녀는 그런 잠든 처녀를 어둠 속에서 지극히 연민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일 까닭이 없으나 우녀의 눈은 마치 늙은 올빼미인양 어둠 속의 사물을 잘 포착하는 힘이 요술인양 생겨 있었다.

"불쌍하다" 라는 그녀의 한숨섞인 낮은 말 한 마디는 반드시 그런 소석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에 대한 어떤 아득한 회한이기도 한 것인가. 그것 이상의 것이라면 천상 도리천의 두 남녀 천신까지도, 아니 온 세상의 중생들이나 나한 보살 부처들까지도 아울러 그녀의 경계없는 연민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른다.

"불쌍한것 끼리의 말 한 마디가 진언(眞言)이지… 암 진언이구말구."

그녀의 입안에 숨결처럼 들어있는 염불선의 부처 이름 따위야 들어있으나마나 차별이 없게 익숙한 것이어서 그 염불선의 힘이야말로 실로 불가사의한 것으로 그녀의 환경이나 그녀의 섬과 멀리 떨어져있는 곳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염불선의 힘이 문득 지나가던 다급한 달구지가 멈춰선 것처럼 멈춰서 괴괴한 나머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처의 이름이 아니라 몇마디 독백의 말이었다.

말이 끊어진 경계로부터 다시 말의 경계로 돌아왔다. 아니 말이 끊어진 경계 자체가 말의 경계로 돌아오기 위한 공부였던가.

그녀는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불쌍한 것들! 이 사바세계에서는 서로 탁마라는 도반이더니 정작 33천에 올라가 그 보라빛 구름 속에서 음양의 애욕이 생겨 그 애욕의 씨를 낳게 되다니… 윤회란 공부인가 하면 또한 공부를 몽땅 저버리는 노릇이기도 하지. 쯔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하나의 소천세계이든 3천대천세계이든 아니 그것의 무한대로 팽창나가는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이든 그것의 극소와 극대와 상관없이 그런 세계가 성립되는 것이 바로 이 윤회 때문이다.

그런 세계를 텅 빈 상태로 두어 마침내 그 세계의 소멸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름아닌 뭇중생들의 세세생생이 마치 제석천의 궁전을 장식하는 보석그물인양 이어져 서로가 서로를 맞아들이기 때문이다.

제석천궁의 보석그물이라니!

바로 그곳의 그물은 수많은 각각의 미세한 그물코마다 보배구슬이 붙어서 각각의 코에 달려 그 구슬이 다른 일체의 구슬의 그림자들을 비추고 그 하나하나의 그림자 속에 다른 일체의 그림자가 비쳐오는 것처럼 무한히 서로 그 영롱한 빛들의 무수한 것이 교차되고 반영되는 그 중중무진으로서의 다함없는 사사무애의 원융조차도 중생 윤회의 세계 없이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린이의 바다

우녀는 그 밤중 가장 밝은 눈을 뜨지 않고 감은채 그 감은 눈으로 바로 화엄의 법계 즉 세계를 볼 수 있는 더 없는 축복 가운데서 벗어나 있었다.

한갓 연민의 정서와 이런 우주적인 자기확대의 경지는 왜 그다지도 자연스러운 것인가. 마치 파리 한 마리가 짐승의 축축한 배설물이 말라버리자 떠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녀는 혼자 화엄법계의 십현문(十玄門)의 하나인 인타라망경계문(因陀羅網境界門)에 들어서서 그 보배구슬들의 빛이 서로서로 비추는 그 찬란한 교호(交互)의 서로 들고 서로 나오는 세계를 보고 있음이 아니던가.

도리천 합두와 붙이가 살고 있는 곳이 곧 제석천의 주재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석가모니부처님의 생모 마야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곳의 오랜 천신 생활을 하고 있거니와 바로 그곳의 도반과의 몇마디 말이 우녀로 하여금 오늘밤의 드넓은 세계에의 시야로 발전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 사바세계 섬부주의 인연을 흘티에 벼의 낟알을 흩어내듯 탈탈 털고 그 천상의 세계로 올라갈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무욕도의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낸 뒤에나 아주 천천히 저문 날의 소처럼 이곳을 떠나던지 말던지 할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조차도 망상으로 알아 바로 묻어둔 낙엽처럼 땅 속에서 썩어버릴 노릇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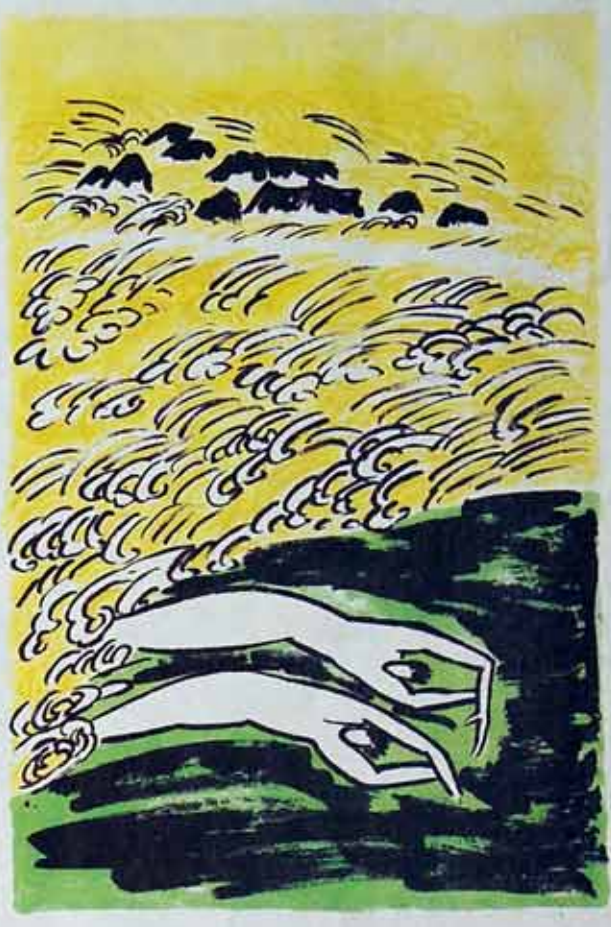
다음날 새벽 예불시간에 소석이 깨어나자 우녀 자신도 막 깨어난 것처럼 깔고 있던 것들을 치우기 시작하였다.

"잘 잤지?" 하고 우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한 걸음 뒤늦은 소석행자가 어떨결 모르며 "네… 보살님께서도 잘 주무셨는지요"라고 말소리를 떨며 인사를 하였다.

"소석행자와 함께 자고 깨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야" 라고 여느 때와 달리 소석을 기쁘게 하였다.

아침 예불이 죽비소리에 맞추어 불상 없는 수미단의 빈 곳에 큰절을 아홉차례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바로 1시간의 선정에 드는 것이었다.



우식 · 만우행자 시신을 바다에 던져 마지막 보시공덕을…

그러자 그녀는 대뜸 "우리 머리 위쯤에 올라앉았는데 뭘 걱정입니까" 라고 웃었다.

머리 위는 어디인가. 하늘이 아닌가. 아니었다. 머리 위쯤은 무욕도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효영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가봅시다. 산 위의 토굴자리에 있는지…."

무욕도의 대중이 지난 시절 웅성웅성 많이 불어났을 때 산꼭대기에 절반은 땅 밑, 절반은 땅 위가 되는 용맹정진의 요사채를 얼렁뚱땅 지어놓고 그곳에서 무전과현들이 서로 이길세라 공부를 겨룬 적도 있고 만화와 남각이 "에라 낮잠이나 실컷 자고나면 부처가 되든 똥막대기가 되든… 무어가 되고 말겠지" 하고 벌렁 누워 한잠 자고 내려오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행자들이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멀리 바다 건너 동쪽 바닷가의 산기슭에 있는 마애불에의 하염없는 그리움을 보내기도 하지 않았던가.

효영과 명오가 그곳으로 올라가 어김없이 두 어린 행자를 데리고 내려왔다. 누구 하나 그 행자들을 꾸짖지 않았다.

"네 고프면… 밥 먹어야지" 라는 말이 그 행자들에 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난 7일 뒤 다시 한번 두 행자가 어디 갔는지 몰랐다.

그때 효영들이 또 산꼭대기에 가보려했는데 우녀가 흐린 날의 갈매기 몇 마리를 쳐다보았다. 이 바다 위에서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산 늙은 갈매기들이었던 것 같다. 바로 그 갈매기 몇마리 중의 두 마리가 그만 더이상 날아오를 힘이 없었던지 파도 위에 내려와서는 그 길로 파도더미에 파묻혀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우식행자… 만우행자… 이승을 하직한 것 같애."

이 말이 우녀의 입에서 그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르르 흘러나왔다.

인담이 그런 우녀에게 정신을 가다듬게 하려는 듯이 좀 큰 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소?"

우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혼자 한 마디 내뱉았다.

"무엇하려고 그렇게 급한 길 간다? 한 해 지나서나 가도 될 일인데…."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후 운력(運力)시간에 섬의 동남쪽 바닷가의 아주 좁다란 모래밭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두 행자의 시신이 서로 엉겨붙어 누워 있었다. 시신의 상반신들은 바닷물에 잠겨있었다.

인담이 대해 효영 명오들과 함께 그 시신들의 떼배를 북쪽 선착장에서 몰아와 거기에 싣고 바다 복판께로 나아갔다.

말하자면 굳이 장황한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을 생략해버리는 인담의 결단이 그렇게 바다속에 던져서 고기들에게 먹거리라도 되는 마지막 보시(布施) 공덕을 그 어린 영가들에게 안겨주려는 뜻이었다.

북소리도 없었다. 사람들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소리도 없었다. 소리는 오로지 파도소리였고 그 파도소리의 겨우 몇 개가 떼배를 큼지막한 헛바닥으로 핥는 소리일 따름이었다.

인담도 누구도 입을 꿰맨듯이 한마디 말도 있을 수 없었다. 오직 명오만이 눈물 한방울을 두 눈에 매달고 있다가 신푸넝스러운 바닷바람 한 자락이 그것을 나꿔채가버렸으므로 눈물자국 따위도 없었다.

반나절이면 십릿길을 거의 다 갔으리라. 갓을 쓴 노인의 걸음으로도.

그렇게 반나절을 떼배는 아주 천천히 바다 안으로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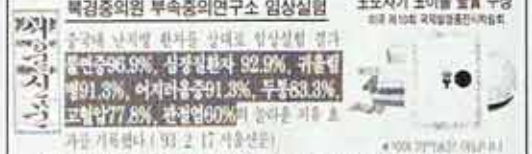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에 그들이 살고 있는 무욕도가 아주 작고 볼품없는 섬으로 보일만한 거리에 이르렀다. 바로 그곳에서 두 시신은 물속에 밀어넣어졌다.

그림 · 조향숙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고 독
이자임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大후,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확실한 에너지 보충! 춘천옥산가 玉!
심장에 가장 좋은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스트레스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4.50대 주부의 회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좋 듬습니다.
난치병 치료에 한계를 느끼는 현대의학을 보완합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렌망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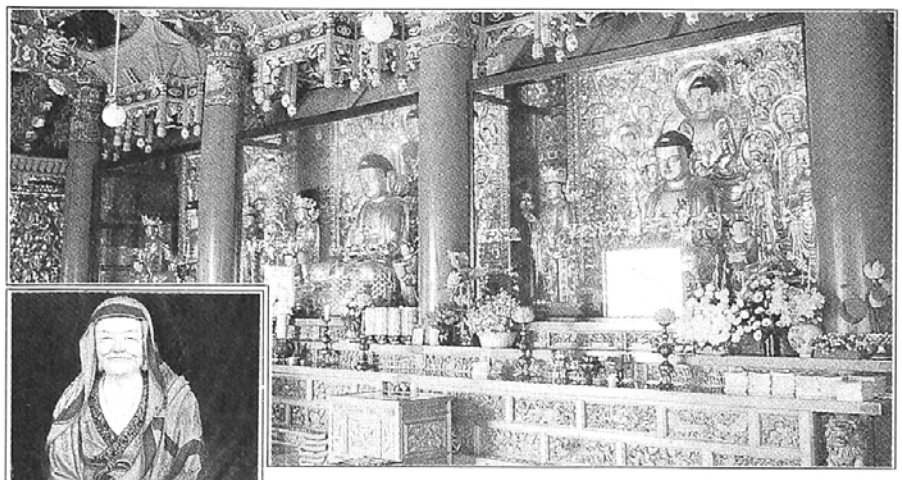
二軾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요!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軾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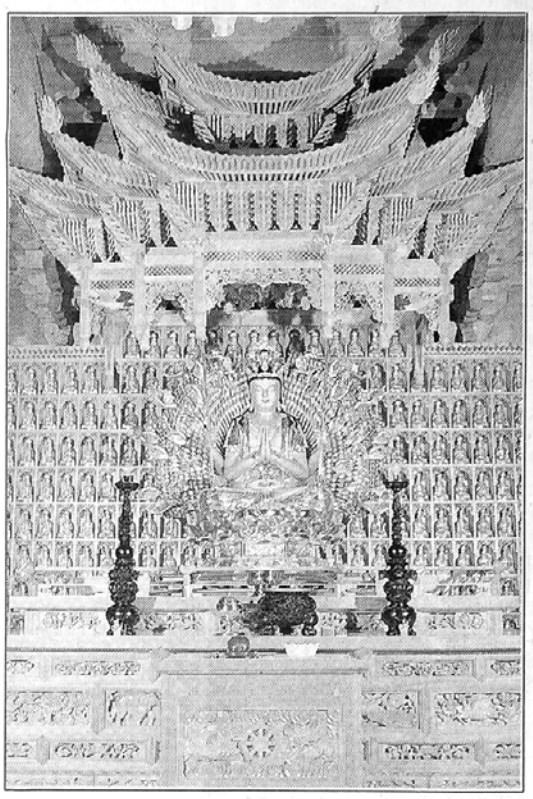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案 포교지도자양성고시 內

포교는 불교의 생명이며 포교사·법사는 불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사와 같습니다. 자아발견과 인간자각을 위해 하심과 인욕행을 배우며 지혜와 자비로 평화의 길·봉사의 길·해탈의 밝은 길을 밝히는데 눈과 손이 되어주시고 보살서원으로 정진하실 포교사·전법사·법사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시위원회

- 증명 : 송서암(전 조계종 종정)
  강석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김혜암(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안덕암(전 태고종 종정)
- 고문 : 무진장스님, 성암도스님, 김태응스님, 김법혜스님 이외윤·김명윤
- 총재 : 윤호석
- 고시위원장 : 월운스님
- 고시위원회 : 오형근·김영태·조용길
- 집행위원장 : 성순경

고시문제

- 포교사 응시자 - 불교학·불교사중에서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서 200자 원고지 50매로 논문작성하여 제출.
- 전법사 응시자 - 원시불교·소승(부파)불교·대승불교 가운데서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서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논문 작성하여 제출
- 법 사 응시자 - 원시불교학·삼론학·유식학·정토학·구사학·밀교·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 중에서 본인이 연구하고 관심있는 부분에서 150매 내외로 논문작성하여 제출

※「처음 응시자는 포교사, 포교사는 전법사, 전법사는 법사로 응시함」

구비서류

1. 고시지원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복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진 4매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5. 호적등본 1부
6. 포교사자격자는 포교사증 사본 1부
   (도장을 두군데 정확히 본인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료 : 50,000원 ※온라인번호 -주택은행 490701-94-200265〈예금주:(사)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자격 득 한후

- 합격자에 한하여 품계식거행
- 연수 및 분기별교육예정(사저명 교수초청특강)

논문마감 1997年2月10日 18:00까지 제출

면접고사 1997年2月19日 14:00
(전형료 납부후 논문제출하여야 면접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장 소 불교방송국 3층 법당(마포구소재)

주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국여법사회
후원 : 불교TV · 불교방송 · 현대불교 · 주간불교 · 대한불교

문의처 : 포교지도자양성고시위원회 총무처 TEL .(02)395-2571/2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60호 FAX (02)395-2574

불교중흥회관 개원 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신정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조계종 전 종정이신 송서암 큰스님께서는 10여년 전부터 김청암 큰스님을 위시해서 명도각 스님, 허봉정거사 및 법성회 신도들과 함께 **"한민족 불교 중흥회"**를 결성하여 북한산 중흥 사지의 복원에 진력한 결과 **"복원 발굴 허가"**를 득하여 복원 불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고려말 5교9산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세우신 태고 보우국사의 유업을 계승하여 한국 불교를 중흥하고자 한국불교의 종가 터인 중흥사 복원과 함께 전 불교도간의 화합과 통일을 발원하셨습니다.
뜻 있는 신도들이 서암 큰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서울종로구 가회동에 불교중흥회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불교중흥회관 개원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참석으로 중흥불사의 인연공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 흥 사 주지 명도각 합장

■ 장소 : 서울 종로구 가회동 가회빌딩 2층 불교 중흥 회관
■ 일시 : 1997년 1월 22일 11시
■ 전화 : 02)744-0315

한국 불교 전통 (범음 · 범패) 의식 연구원

본 연구원에서는 제반의식을 전수코자 스님 및 포교당, 사찰 운영하는 분을 모시고 실전의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제반의식(천도재, 49재, 예수재)
대령관욕, 상주권공, 요잡, 어산작법
바라춤(대다라니, 사다라니)

한국불교 전통(범음 · 범패) 의식연구원

문의 접수처 : 051-464-5997

룸비니 대성석가사 법당기공식 및 불교성지순례

■ **기간** : 11박 12일 - ₩1,500,000원(1인당)
■ **일자** : 1997년 2월 22일-3월 5일(12일간)
■ **일정** : 서울 - 방콕(1:경유) -카투만두(1.파탄사원)-룸비니(2:대성석가사, 룸비니동산) -쿠시나가르(1.기원정사)-나란다(1:나란다대학)-보드가야(1.전정각산)-바라나시(1.녹야원)-캘커타(1.경유)-방콕(2:새벽사원,에머럴드사원)-서울

☞ 여행조건 : 최소출발인원 20명, 숙박일급(2인1실), 출발10일전마감, 해외여행자보험(1억원) 항공,기차(보두가야-캘거타)및 전용버스, 전일정식사포함(기내식포함), 여행인솔자 동반, 출발지 (김포공항), 여권,비자수속비 불포함
서울특별시관광협회광고심의필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주)리베로여행사
국외여행업등록 제43-4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8-4호 남성빌딩 3층
전화 : 02-568-4224(대표전화)
팩스 : 02-552-1842

방방곡곡 정신 살찌우는 야외 강의실

답사기 미리 읽고 떠나자

'97 문화유산의 해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찾아가는 문화유적 답사여행은 삶의 재충전 기회인 동시에 내면의 살을 찌우는 흡족한 강의실이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는 올해 이같은 문화유적 답사나 순례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하는 유적답사' '대학박물관 주관 문화유적 순례' '역사의 현장 세미나' 등 13건의 '문화유산 알기' 사업을 통해 유적, 인물 등 주제별 답사코스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을 돌아보며 조상의 숨결을 느끼는 여행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붐을 이룬 것은 3, 4년전 부터.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유적 답사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적지, 명산고찰을 찾아가는 답사기와 전통사찰 안내서 또한 꾸준히 팔리고 있다.

'문화유산 답사기' 하면 떠오르는 책은 단연 유홍준교수(영남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돌베개)다. 90년대 한국출판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이 책은 세인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우리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학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되었던 답사여행을 대중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93년 5월 출간 이래 100여권에 이르는 답사기 출판 붐을 조성한 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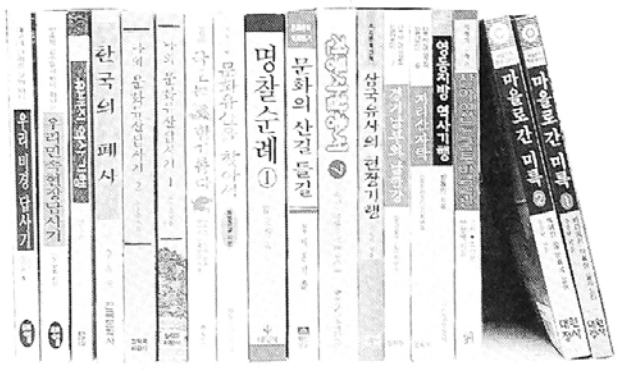
유홍준교수가 이끄는 한국문화유산 답사회의 〈답사여행의 길잡이〉(돌베개) 시리즈, 정재훈씨가 쓴 〈문화의 산길 들길〉(화산문화)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전북 경기남부와 남한강편 등 7권이 나와있는 〈답사여행의 길잡이〉는 문화유산을 독자들이 직접 느끼고 찾아볼 수 있도록 철저히 답사여행 실용서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문화의 산길 들길〉은 전국 각지의 문화유적들을 30여년간 직접 발굴조사하고 보존관리해 온 문화재 전문위원이 쓴 답사기다.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전통사찰을 찾아가는 답사기도 많이 나와 있다. 최완수씨의 〈명찰순례 1, 2, 3〉(대원사), 이고운·박설산씨가 함께 쓴 〈명산고찰따라〉(전 4권·운주사),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 이재준씨의 〈한국의 폐사〉(한국문화사) 등이 대표적인 책들이다. 〈명찰순례〉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미술사학적인 해박한 지식이, 〈명산고찰따라〉는 전국의 고찰을 대부분 수록한 점과 간략한 사적기와 약도를 곁들인 점이 돋보인다. 〈전통사찰총서〉는 충분한 답사와 문헌조사 등을 통해 가장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지역 단위 답사 안내서로 적합하다. 〈한국의 절터〉는 백제지역의 절터를 중심으로 폐사지를 소개한 답사기다.

'명찰순례' 등 1백여권 출간 안내서 역할
고찰등 민족 유산 역사·의미 상세히 소개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답사기는 이밖에도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다. 국토순례 답사기로는 〈국토는 향기롭다〉(미래사) 〈우리 비경 답사기〉(태일) 등이 눈에 띈다. 민속·민중신앙 답사기에는 〈우리 민속현장 답사기〉(태일) 〈마을로 간 미륵 1, 2〉(대원정사) 등이 있다. 또한 역사인물을 찾아가는 답사기에는 〈유배지 역사기행〉(집현전) 〈선현을 만나러 가는 길〉(자작나무)이 있다.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불서100선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자연의 가슴에 심연깊은 얘기를 쏟아 놓으며 귀한 도반과 함께 석남사를 찾았다. 가을 낙엽 고요히 떨어지는 채전 밭에는 잿빛 의상 걸친 배추를 닮은 눈빛이 잘 걸러진 햇살에 반짝인다.

96년 5월 샘터사에서 발행된 이 책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가 내손에 들어 올 때는 이미 10쇄를 기록하고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끌고 있음이 분명했다. 절 입구 선물센터에서 고운 도반에게 받은 선물이기에 성의를 생각하면서 저자 법정스님의 새로운 향기가 궁금해 하루만에 다 읽은 책이다.

법정스님은 이미 15권(번역서 포함)이란 많은 책을 집필하셨고 무소유자로서 거룩한 법열로 세간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다. 필자와도 인연은 한번 스친 적이 있다.

2년전 부산에서 '맑고 향기롭게'라는 슬로건 속에 부산 KBS홀에서 제1회 행사를 치를 때이다.



강 문 숙
〈시인·봉강서예학원장〉

법정스님은 단상에서 설법하시고 필자는 발원문 낭송을 하게 되었다. 그때 수천명의 불자와 일반인들이 북도의 멀티비전을 통해서 계단 곳곳에 쭈그리고 앉아 스님의 법문을 듣겠다고 운집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저자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로 통하는 마음의 문을 얻고, 가족과 나를 사랑하며 이웃과 부처님께 귀의하는 소담스런 얘기로 엮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과 어울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떤 삶을 최고 가치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은 누구이며,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새벽에 귀 기울여 들어 보라고 하는 말씀에 내 마음은 첫 눈을 밟는 듯한 상큼함을 느꼈다.

침묵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기도며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침묵속의 명상임을 알고 시시로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라는 화두도 내리고 있다. 한촉의 난이 말벗으로 앉은 초막 위의 달을 보며 시를 짓고 백련을 찾아 2천리길, 동백꽃 낙화에도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이 책은 한 편의 서정시를 품고 있는 청초함이 서려있다.

고마운 자연을 끊임없이 허물고 더럽히는 과학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들에게 언젠가는 거스르지 말고 가슴으로 사랑하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또한 이 사회가 총체적인 부정부패로 전락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개개인이 하루 한 때라도 자신의 삶을 안으로 살펴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한데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육체의 죽음은 공간적 육체와 시간적 의식을 없애는 것이지만 자연의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영원한 파멸의 무덤으로 이끈다는 생각을 하니 부엌에서 일어나는 작은 쓰레기 하나에도 정성스레 걸러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엮어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모두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소박·진솔한 표현속 진리가득
독자에게 반성의 시간 주는 책

출판화제

"일연사상 민족화합의 길"
고영섭씨, 계간 '화두와 실천'에 발표

"일연스님은 고려 건국이래의 통일전쟁과 몽골의 침탈로 인한 국론분열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민족화합의 길을 불교적 에너지를 통해 회통시키고자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계간 〈화두와 실천〉(실천승가회 刊) 겨울호에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씨가 발표한 '일연의 통일학'이란 논문이 그것.

고씨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통해 우리 전래의 하느님(桓因)을 불교적 용어에 착안하여 제석천(帝釋天)인 천제환인이 석제환인(〈법화경〉에서는 환인)이 된다고 해석한 점 등을 든다. 또한 고려 재조장경 관각에 주도자로 참가해 민족의 에너지를 〈대장경〉이라는 거대한 문화체로 종합 정리해 내려는 의지를 보인 사실 등을 든다. 결국 분열된 후삼국의 통일을 일심(一心)으로의 회귀와 불교적 이상국가란 비전의 제시를 통해 한 민족의 단일성을 제고시켰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호 〈화두와 실천〉에 실린 '정부의 종교정책을 점검한다'(김징자), '국토개발과 사찰환경의 파괴'(홍광표) 등의 글도 읽을 만하다. (02)725-4277

'한국의 불교미술' 개정판
11년만에…한국불화·단청등 추가



도서출판 대원정사(대표 장상건)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스테디불서인 〈한국의 불교미술〉 개정증보판을 11년만에 펴냈다.

불교미술의 정의로부터 불상 탑 석등 부도 불화 불교공예 등 불교미술 전반을 알기쉽게 소개한 이 책은 그간 불교미술의 전체 구도를 파악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이번 증보판에서는 禪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글과 고려불화등 한국불화에 대한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추가했다. 또한 단청 부분도 새롭게 첨가, 불교미술 전반에 대한 입문서로서 완벽한 체제를 갖추었다. 양식론·예술론적 고찰과 함께 교리적인 해설도 녹여 놓았다.

신국판 406쪽, 8천5백원.

화제의 책

행적·사상등 자료 빠짐없이 정리

원효의 생애와 사상 | 황영선 편저



황영선 변호사(63)가 쓴 〈원효의 생애와 사상〉은 원효의 생애와, 행적, 사상 등 방대한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엮은 원효 연구서다.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지 답사와 다양한 자료수집에 심혈을 기울여 신국판 506쪽의 무게있는 연구서를 엮어냈다.

제1장 '원효의 생애'편에서는 원효의 가계(家系), 탄생, 수학및 출가의 전과정이 관련설화와 사찰연기 등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제2장 '원효의 사상'편은 원효의 주요 저술 22권과 특징적인 사상을 정리했다.

이중 원효의 〈발심수행장〉 〈대승기신론소병별기〉 〈금강삼매경론〉과 일체무애(一切無碍)·귀일심원(歸一心源)·화쟁(和諍)사상에 대해서는 따로 節을 두어 해설했다. 〈국학자료원 1만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3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4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6	禪 이야기	일 지	운 주 사
7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8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9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10	한글 아함경	고 익 진	동대출판부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마음은 보석(김성규 저)='이뭣고' 백년결사운동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규 교수(영남대 의대)가 쓴 우리말 〈금강경〉 해설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되, 개략적인 해설을 붙여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다. 〈신구문화사 7천원〉

▲보현행원품(한정섭 강의)=보현행원품은 53선지식을 찾아 진리를 구하는 선재동자에게 마지막 구도행을 가르치는 보현보살의 행으로 화엄경법문의 총결이다. 한정섭법사가 징관(澄觀)스님의 행원품소(行願品疏)와 규봉(圭峰)스님의 수소초(隨疏抄)를 중심으로 번역 해설했다. 〈불교통신교육원 6천원〉

▲나를 아는 자는 나를 찾고 나를 모르는 자는 나를 찾지 말라(송혜 저)=부산 기원정사 주지 송혜스님의 법어집. 다른 법어집과 달리 '마음의 극락' '허공은 무서운 거다' 등 72편의 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음출판사 5천원〉

▲효경대의(정태현 역주)=전통사회 윤리관의 중심사상이었던 효를 다룬 〈효경(孝經)〉은 공자와 그의 제자 증자(曾參)의 문답 중에 효도에 관한 것을 추린 책. 〈대학〉이 학문의 근본을 밝힌 책이라면 〈효경〉은 행동의 준칙을 밝힌 책으로 아동으로부터 군왕에 이르기까지 필독서였다. 정태현교수(民推 국역연수원)가 토를 달고 완역했다. 〈전통문화연구회 7천원〉

▲아이는 스낵 먹듯이 영어를 배웠어요(한미전 저)=특파원 아빠를 둔 6살짜리 아이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익히며 미국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엄마인 저자가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 쓴 책.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서 영어를 잘 하게 되었는가'에 촛점을 두었다. 〈책만드는집 6천5백원〉

대유 학당의 저서

懸吐完譯
陰符經과 素書

자신있게 권하는 『음부경』과 『소서』의 완전번역



『천부경』과 더불어 반만년을 감춰온 신비의 책 『음부경』, 장량이 얻어 한번 사용함에 천하를 통일하게 한 『소서』 『소서』의 6장을 먼저보고, 의 『음부경』3편을 보면 천하를 자신할 것이며, 이 책에 있는 역사적인 고사(古事)만 보더라도, 상식과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 4×6배판, 343쪽
정가 12,000원(별책부록 포함)

周易傳義大全譯解

주역전의대전역해 (周易專義大全譯解)

의리학과 점학의 양대 기둥이며 주역을 연구하는데 있어 필독서인 정자의 『정전』과 주자의 『본의』를 국내 최초로 완역하고, 그밖에 내용설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주석을 덧붙였다. 부록에는 두 선현의 문인계보도와 함께 문인들의 약력을 실었다.



※ 4×6배판, 장서용, 호화장정
총 1601쪽, 상·하 각 30,000원

대유학당 : 서울시 종로구 숭인2동 261번지 화성빌딩 3층
전화 : (02) 232-8383
팩스 : (02) 234-1786

올 불교미술展 테마기획 '봄'

지장시왕·윤회·환경 등 주제



◇올해 불교미술단체들은 대부분 특정한 주제의 '테마전'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지장시왕, 윤회, 환경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테마전시회'의 붐이 일고 있다. 올해들어 주요 불교미술단체들이 하나의 주제를 세워 그에 맞춘 작품 제작과 전시를 계획해 놓고 있는 것. 테마여행, 테마답사, 테마공원, 테마드라마 등이 늘어나는 사회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이러한 테마전의 붐은 올해 불교전시회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올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회원전이 대체로 일정과 장소만 정해지면 그림의 주제와 내용은 회원 각자의 뜻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전연호)는 오는 9월10~23일 열리는 회원전의 주제를 '지장시왕(地藏十王)'으로 잡았다. 최근 교계에 불고 있는 지장신앙의 열풍과도 무관치 않은데 전연호 회장은 "자욱중생까지도 전부 구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은 나날이 냉혹해지고 살벌해지는 현세태인들에 보여주기 적절한 주제라고 여겨져 회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정했다"고 말한다.

민족환경불교예술인연합회(회장 강행원)는 오는 6월경 '환경과 생명운동'을 주제로 해 회화, 조각, 설치미술전을 가질 예정. 그림이나 조각 설치물을 통해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명사상을 굴쳐보이고 각성을 일깨운다는 것. 한국불교미술인협회(회장 박찬갑) 역시 오는 8월 불교사상을 주제로 한 회원전을 덴마크 코펜하겐시에서 초청전으로 갖는다.

동국대에서 조각을 전공한 불자조각가들의 모임인 동국조각회(회장 이점원)는 8~9월경 대구, 부산에서 갖는 회원전의 주제를 '윤회' 또는 '만다라'로 잡을 예정이다. 동국조각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좌담회 등을 미리 열어 주제에 대해 사전 이해를 깊게 한다는 것.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이상배)가 오는 9월 여는 회원전의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접목'이며, 대한불교미술작가협회(회장 한승구)는 오는 4월 부산에서, 10월 서울에서의 전시회 주제를 '시각포교'로 잡았다.

이같은 미술단체들의 테마전 붐에 대해 진영화씨(한국화가·한국불교미술인협회 고문)는 "테마전은 관람객들에게는 같은 주제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개성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會로서는 회원들의 단합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오늘의 감로탱展」 열린다

조선시대 불화중 사회현실을 표현했던 '감로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테마전이 열린다. 오는 3월4일부터 4월 4일까지 한달동안 갤러리 시우터에서 열리는 '세기말, 다시 찾은 감로탱'展이 그것.

감로탱은 조선시대 유행한 불교회화로, 불의의 사고등 갖가지 형태로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방황하며 떠도는 영혼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천도재를 위해 봉안했던 그림. 삶과 죽음에 얽힌 광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돼 묘사되는 등 피안의 상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극적인 대비가 어우러지는 불화. 감로탱은 형식과 도상에 있어서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어 화가의

3월4일부터 갤러리 시우터
현대사회 자화상 진솔하게 표현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시대의 양식변화가 뚜렷해, 그려진 시대의 자화상을 가장 진솔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림으로 요즘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감로탱전은 이러한 감로탱의 특색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1, 2, 3부로 나뉘어 전시된다. 1부(3.4~3.13)에서는 전통의 계승과 재현의 이미지를 위주로 하는 작품들이 선보이고 2부(3.14~3.23)에서는 감로탱을 부분적으로 차용 또는 인용하거나 독창적인 기법으로 재구성한 현실의 감로탱이 나온다. 3부(3.25~4.4)에서는 현대문명의 매체인 미디어로 본 이미지화한 감로탱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번 감로탱 테마전에는 손연칠 박문선 김봉준 유양옥 허진 김운씨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02)3442-5161



◇초의스님 영정. 태평양화학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초의스님 기념관 세운다

대흥사에…무안군 추모각등 성역화도

오는 5월은 문체부 지정 '초의선사의 달'. 초의스님(1789~1866)의 달을 기념해 초의스님 탄생지가 있는 무안군과 스님이 주석했던 대흥사가 각각 추모각·유허비, 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

전남 무안군은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초의스님이 출생한 삼향면 왕산리의 토지를 2천여평 매입해 추모각(20평), 유허비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지역인사와 학계 불교계 종친들로 '초의선사현창사업추진위'의 구성을 앞두고 있는 무안군은 스님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한후 오는 5월 추모각 등의 착공에 들어가 년말에 완공한다. 무안군은 초의스님 출생지를 성역화함에 따라 내년부터 초의스님관련 추모문화행사를 본격 추진한다.

대흥사는 사내에 '초의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상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서산관과 함께 건립되는 초의관은 50여평 크기의 전통불교건축 양식으로써, 초의스님 관련 유물이 다수 전시될 예정으로 내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숙〉

불심시심 〈73〉

저것이 평상의 마음

有庵飛鳥外(유암비조의) 나는 새 밖에 떠있는 암자
眼界割蒼茫(안계할창망) 갈라져 아득한 시계
地滑琉璃色(지활유리색) 땅은 유리 색깔처럼 매끄럽고
天浮日月光(천부일월광) 하늘은 해와 달빛에 떠 있구나
黃菊金難比(황국금난비) 황금으로 견주기 어려운 국화
丹楓錦不當(단풍금부당) 비단으로 감당못할 단풍
虛心看物處(허심간물처) 마음비워 사물 바라보는 곳
那箇是平常(나개시평상) 그것이 바로 일상적 평상

이 시도 지난 번에 보았던 무경대사의 시이다. 시의 원제는 '고옥(古屋)'이다. 예전부터 살아오는 낡은 집이라는 뜻이겠다. 이 거처가 비록 낡기는 하였지만 매우 아름다운 풍경이다. 황금이나 비단보다 아름답다 하였다. 그러나 사람살이의 일상에는 황금이나 비단이 귀하지 국화나 단풍이 귀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비워놓은 마음으로 보면 이 자연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다. 더 나아가 귀함도 귀하지 아니함도 없이 사물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평상의 마음이다. 이 평상의 마음이 되려면 마음이 비어야 한다. 이 비우고 비우지 아니함은 바로 표리의 관계이건만 세속의 삶에는 이 표리가 전도되어, 어느 것이 겉이고 어느 것이 속인지 모르는 착란으로 이 평상심을 잃고 있는 것이다. 대사의 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평상심을 찾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앞 구(句)들에서 자연을 되도록 미화시켰던 것이다. 대사는 이렇듯 선기의 노출을 자연의 노래에다 함축시키면서 시는 시 자체로서의 미를 간직하고 있다.

이 시에서도 시의 구도가 매우 짜임새 있게 되어있다 하겠다. 우선 암자의 위치를 극단으로 높여서 시계를 끝까지 끌어 보았다. 새가 날아가는 저 밖으로 암자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그러하려니 시계가 갈라졌다(割) 하였다. 이것은 다음 구에 오는 땅과 하늘을 대칭시킬 예비적 포석이다. 땅은 유리빛으로 매끄럽고 하늘은 일월의 빛으로 빛나니, 상하의 공간이 이 한자리를 위하여 맑게 트여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좌우의 공간으로 시선을 돌리면 국화와 단풍이다. 지금 이 국화는 황금으로 비유될 수도 없을만큼 풍요롭다. 다시 단풍을 바라보니 비단보다 곱다. 이것이 이 낡은 옛 거처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다. 세속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키 어려운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평상의 아름다움이지만, 이것들을 다시 황금이나 비단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미 자연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평상의 일이 될 수가 없다. 자연을 자연으로 보려면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이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도로 미화하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마음 비움이라는 결론으로 유도하였다. 시의 구도로도 수준 높은 꾸밈새를 보였다. 역시 스님의 작시적 자세라 하겠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한복입으면 고궁 무료입장

올 1년…박물관도

올 1년동안 한복을 입은 사람은 국립박물관이나 고궁 등에 무료 입장된다. 문화체육부는 우리문화의 상징물인 한복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한복을 입은 사람에 한해 관람료를 받지않기로 했다.

무료관람 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지방소재 8개 국립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5대궁 △서오능 광릉 등 13개 능, 원 △현충사 여주영릉 금산칠백의총 등 유적관리기관 3곳 등 모두 31곳이다.

선암사 유물전시관 건립

2백여평 목조건물 내년 완공

순천 선암사(주지 지허)에 대규모 유물전시관이 건립된다.

순천시는 지난 9일 선암사에 국·도비 30억원을 들여 오는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유물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될 전시관은 전통 목조건물로 수장고를 포함 2백여평 규모로 오는 3월중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전시관 건립은 그동안 문화재관리가 허술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시관이 완공되면 대각국사 진영 등 각종 보물급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일반에게 귀중한 문화유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소식

'붓다의 메아리' 참가 접수

청교련 주최 제46회 붓다의 메아리가 오는 2월 23일 불교방송 3층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 행사에 참가할 청소년 단체및 일반청소년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부문은 △전통예술부문(사물놀이 풍물 고전무용 탈춤 가야금산조 등)과 △대중예술부문(연극 현대무용 중창 꽁트 방송극 등)으로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02)733-5138(청교련 서울지부)

해동 용궁사 寺歌 공모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정암)는 연화합창단 창단 1주년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사가(寺歌)를 현상공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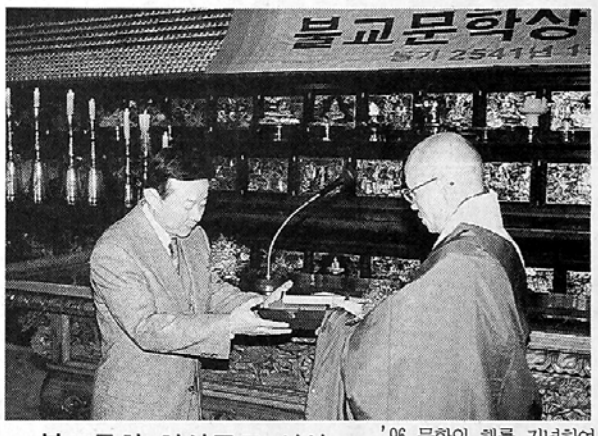
해수관음대불이 있는 관음기도도량으로서의 용궁사의 이미지를 대외에 잘 알려줄 가사로써 당선작은 상금 1백만원이다. 발표 2월 10일. 문의(051)722-7744

신라불교 발상지 조사

신라시대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장소로 알려진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모례정 주변과 신라 최초의 사찰로 알려진 해평면 도리사 등 신라불교 발상지에 대한 전문학술조사가 실시된다.

구미시는 지난 9일 한국교원대 박물관과 신라불교 발상지에 대한 학술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일대의 발굴, 복원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도화상이 신라 땅으로 들어와 불교를 최초로 전파한 지역으로 알려진 '모례의 집'이 있던 장소인 모례원과 우물터인 '모례정'(문화재자료 296호)을 위주로 실시되며, 도리사의 옛 절터와 현재의 도리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불교문학 현상공모 시상

'96 문학의 해를 기념하여 조계종이 실시한 총 1억3천만원 고료 불교문학현상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거행됐다. 조계종 월주총무원장, 불교문학현상공모운영위 고은위원장, 원로시인 이원섭씨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장편소설 이상우씨〈사진〉 등 8개부문 11명(당선작과 가작)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등이 시상됐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치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특수 이러분의 신식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포교당 안내(하실분)
●위치 : 도봉구 수유리
●보증금 : 3천만원
●시설비 : 2천만원(월세3)만원)
※ 상담후 절충가능
전 화 : 3492-4678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작은 암자가 비어 있는 관계로 조용히 공부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방3칸, 법당, 산신각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북산리 용주암
연락처 : 0459-953-1190

20년 전통의 모범업소
여의도 소망 결혼 상담소
(관허 14호)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불자님께 맺어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춘미 합장
■초혼 : 의사, 박사, 약사, 판·검사, 행정고시 합격자
■재혼전문
■엘리트 결혼·중매
■책임성혼
문의 전화 | 주간 (02)783-1777 야간 (0343)47-1046

氣 치료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543/7306 전문시술원. 좌골신경통 (3회끝) 張三洙 합장 711/4370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전 30년이상됐음
▷가격 :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취업을 원합니다
경력 25년(1종보통)
중고베스타 12인승 소유
지역에 상관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0523-81-3200
김호준 합장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작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광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외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王 합장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닫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을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포교당 안내
포교원 인수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위치 : 부산 동래구청옆
●실평수 : 24평
●전세금 : 4100 (월세가능)
연락처 : 051-747-3855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대원사
전화 : 0331)262-0606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한 분(50-60세)
내외분(살림)도 가능함.
덕불산 불광사
경기도 인천시 서구 성남1동 199 1/4
연락처 : 032)583-5238
핸드폰 : 011-330-5238



◇맑고향기롭게 모임은 지난 15일 계룡산 동학사 주변에서 제1회 사찰환경 생태기행을 가졌다.

"풀 한포기 곤충 한마리 인간과 더불어 살아야죠"

본사후원 맑고향기롭게 '동학사 생태기행' 동행기

"아빠! 사찰에는 왜 커다란 나무가 많아요"

"그것은 불교에서 사람과 나무를 둘로 보지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사찰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아들 재환(13세) 딸 소희(10세)를 데리고 참가한 정병관씨(서울 선희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에 분주하다.

맑고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스님)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제1회 동학사주변 '사찰환경 생태기행'에는 50여명이 참가했다. 겨울방학이라서인지 현장환경교육을 위한 자녀 동반 가족단위 참가가 많다.

15일 오전 11시경 계룡산 동북쪽에 위치한 동학사에 도착하여 참배하고 신라 성덕왕 23년 창건하여 유교와 공존하는 사찰의 역사 그리고 오늘의 역할을 지객스님인 법정스님(동학승가대학 3년)에게 설명들은 생태기행팀은 소중한 사찰환경을 우리손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의 동학사 주위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실태에 관한 강연은 1억7천여만원을 들여 최근 완공한 하루 72.50톤을 1급수로 처리하는 오 폐수시설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며 진행됐다. 스님은 지난 60~70년대에는 계곡이 깊고 아름다웠으며 수량도 많고 산사주위의 나무들도 건강했으나 80년대들어 등산객이 늘면서 등산로 주위 나무들의 고사와 계곡물이 2급수화 되는등 자연환경이 날로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금강의 원류인 계곡을 살리기 위해 관광객의 계곡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태영소장(한국생물기록센터)의 안내로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속에 실시된 동학사 주위 계룡산 자연환경 답사및 현장 체험에서는 화성암류지질과 태극형상의 지형에 소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강아지풀이 많은 이곳 식물생태를 조사했다. 또 원래 505종에 이른다는 곤충을 볼과 몇가지 밖에 볼수 없어 농약사용과 수질악화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나무처럼 침엽수가 많아야 습도가 유지되고 계곡물이 많아진다는 것을 배웠다. 또 등산로 주위가 특히 훼손돼 자연을 지키기위해서는 원초적인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승주군(충암초등학교 4년)은 "집에서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참가하니 선생님의 말씀이 잘 이해됐다"며 "풀 한포기 곤충한마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흥미로워했다.

동학사=김원우 기자

계곡물마저 오염 심각
사찰 오폐수 시설등 견학
가족단위 50여명 참가

"26일 LA 불교TV 시험방송"

한국불교문화 美 전파…매일 30분씩

불교TV LA지사가 오는 26일 오후 3시 미국 LA지역 케이블 채널38을 통해 첫 시험방송 시작, 전법의 해를 맞아 한국불교의 국제포교에 새장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루 30분씩의 방송을 하게되는 불교TV LA지사는 '한국의 불교문화'란 제목하에 이번 시험방송기간동안 불교TV의 프로그램 가운데 현지인들의 반응이 높은 프로를 선정, 방영하게 된다.

프로그램공급은 LA관음사(주지 도안스님)의 비영리법인인 한미불교봉사회가 불교TV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불교TV 경영관리국 이호국장은 "6개월~1년간의 시험방송을 통해 우선은 교포사회에 호응을 얻고 고정채널을 통한 정식 개국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불교TV의 기존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판매 등을 통해 개국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LA 지역에는 KBS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인방송 KATV(ch29)이 하루 12시간 방송되고 있고 또 미주한국기독교TV가 소수민족지역방송채널인 ch39(미국내 소수민족 지역방송채널)를 통해 작년말부터 하루 1시간씩 한국기독교케이블TV로부터 프로그램을 직접 공급받아 방송을 하고 있다.

불교TV 이번 LA지사 시험방송을 토대로 착실한 준비작업을 펼쳐, LA분 아니라 미국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교두보를 엮어낼 계획이다.

몽골 불교 "흔들리고 있다"

기독교 경제원조등 선교물결 거세

기독교의 집요한 선교활동이 몽골불교를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의 콜롬비아大 알렉산더 버진 교수(Alexander Berzin, 52)가 최근 뉴스위크지를 통해 밝혔다.

A.버진교수는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몽골이 서구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파의 기독교 또한 대거 유입됐다"고 말하고 "기독교 선교활동이 전통문화와 신앙을 되찾으려는 몽골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몽골사회의 깊숙한 곳에까지 퍼져간 자본주의는 대부분 서구의 원조에 힘입어 이룩됐다. 그러나 몽골이 이룩한 경제성장에는 "영어교사로 가장한 선교사들이 기독교문화를 전파시키고 나중에 돈·컴퓨터·교실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는 버진교수의 말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리고 전통신앙을 위축시킨 부작용이 따랐다.

소련과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7백여년동안 불교사원 대부분이 파괴된 몽골은 지난 5년간 1백55여개의 불교사원을 다시 개원해 전통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달라이 라마(티벳) 역시 지난해 티벳승을 보내는 등 몽골 불교 재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몽골불교는 불교의식 교육만이 가능한 소수의 노승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몽골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기독교 열풍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고 버진교수는 진단했다.

네팔 대성석가사 대법당 기공

내달 25일…요사채 등 1차공사 마무리

네팔 룸비니동산 개발구역내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사찰 대성석가사(주지 법신)를 건립해 화제를 모았던 대각회(대표 도문)가 1단계 공사인 요사채 건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25일 대법당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사원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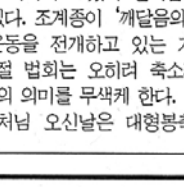
네팔정부가 불교성지의 보존 및 개발을 위해 조성한 룸비니국제사원구역내에 자리잡은 대성석가사는 최근 룸비니동산개발 구역내 추가확보한 1만여평의 부지에 대법당을 건립키로 하고, 오는 2월25일 기공식을 봉행한다.

대법당은 연건평 2천여평에 3층 규모로 건립되며, 4억5천여만원이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용성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 처음 한국사찰건립을 계획했던 도문스님은 "대성석가사 2단계 공사 시작은 1천6백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대성석가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수백만명의 세계불교도들에게 한국불교의 우수한 건축미술과 문화는 물론 국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석가사는 대법당건립에 이어 오는 2천년까지 설법전, 누각, 국제 회의장, 종각 등을 갖춘 세계최대규모의 사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강원, 율원, 선원 등 승려전문교육기관 등도 갖출 계획이다.

룸비니 국제사원조성계획은 지난 58년 마헨들 前 네팔국왕이 처음 제안한 뒤 67년 우탄트전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개돼, 현재 2백40만평 42개 구역에 22개국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문스님

종단소식

27일 관음종 중앙종회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오는 27일 대전유성호텔에서 제34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이번종회에서는 96년 결산안과 97년 예산및 사업계획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종회에 이어 관음종은 '현대와 보살불교'를 주제로 동대 불교대학원 목정배원장 초청 강연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천중사 어린이집 운영

태고종 정릉 천중사(주지 운산)는 오는 24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정릉2동 어린이 집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천중사는 어린이 불교포교의 소중함을 위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불교교양대 신입생 모집 "불법으로 새 봄 맞자"

불자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시키고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해 마련된 불교교양대학이 9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표 참조〉

80년부터 봄이 일기 시작해 현재 전국의 각 사암을 주축으로 개설되고 있는 불교교양대학은 불교기초교리, 경전, 불교미술 등 전문강좌를 개설한다. 특히 불교교양대학에서는 교리강좌뿐만 아니라 신앙심고취를 위해 성지순례, 생활문화강좌 등을 개설, 불자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학교명	모집 학과	원서마감	연락처
대원불교대	불교학과(총강·통신·연구)	2월 28일	(02)776-7156
동방불교대	불교, 범패, 불교미술, 한의예과	2월 21일	(02)763-0229
등산불교대	정규, 통신반	1월 31일	(02)732-1206
금강불교대	천태, 불교학과	2월 10일	(02)464-3306
삼화불교대	불교, 유아교육, 불교미술, 중국어, 신문방송학	1월 29일	(02)511-2026
조계사불교대	불교학과(주간·야간·통신)	2월 28일	(02)720-6742
한국불교법사대	법사과, 오종대법사과	2월 28일	(02)720-1836
삼보불교대	교리, 경전반, 연구과정	2월 28일	(02)352-6406
이리불교대	불교과 법사과	2월 28일	(0653)842-6652
동국불교전법대	전교사, 법사과정	1월 20일	(051)465-6242
영남불교대	기초반	1월 30일	(051)474-8228
금정불교대	경전, 교리반	2월 28일	(051)866-7277
해동불교대	법사, 불교의식법사과	2월 28일	(02)741-0495
전북불교대	불교학과, 보현학림	2월 28일	(0652)226-7878
강원불교대	불교학과(주간·야간·통신)	2월 28일	(0361)51-5040

목탁소리

성도절 행사 유감

김 중 근 〈취재1부〉

지난 16일(음력 12월 8일)은 싯달타 태자가 대각(大覺)을 이뤄 부처님이 되신 날이다. 성도절이 있기에 비로소 불교가 존립한 것이다. 성도재일이 다가오면 선방의 납자들은 음력 초하루부터 용맹정진을 하고 사찰과 포교당에서는 초이레 철야정진을 한다. 또 성도절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날로 부처님처럼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고 일체중생을 교화하여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날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깨달음이 이뤄진 날을 소중히 여기고 기념하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성도가 곧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교에서 깨달음이 갖는 의의를 생각한다면 요즈음 성도절은 지나치리 만큼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금년 성도절도 마찬가지다. 철야정진, 만등불사가 봉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간소하게 부처님 되심을 찬탄하는 봉축법회가 치뤄졌고 일부 사찰에서는 성도절 법회마저 열지도 않았다는 후문이다. 어떤 불사보다 중요시해야 될 성도절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조계종이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절 법회는 오히려 축소돼 깨달음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

부처님 오신날은 대형봉축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고 불자들도 인산인해를 이뤄 부처님 오심을 찬탄한다. 하지만 성도절은 매년 소리소문(?)없이 지나간다. 때문에 불자들도, 스님들도 성도절법회를 점점 벌겋 아닌양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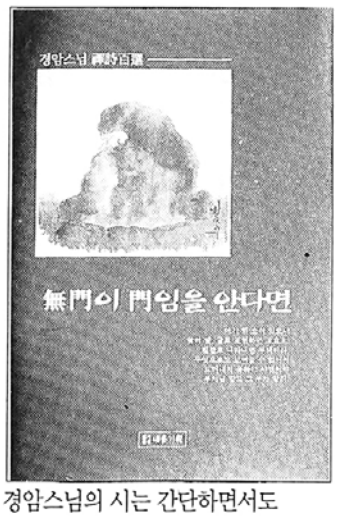
불교가 수승한 종교로 발돋움하려면 성도절을 수행의 바른 길을 찾는 날로 삼아 시대에 걸맞는 성도절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깨달음을 보다 구체적이고 평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스님들이 먼저 나서야 하고 불자들도 성도의 참뜻을 잃지 않도록 정진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의 길'로 한걸음 다가 설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 경암 김준현스님 禪詩百選

時調詩로 엮은 깨달음의 詩!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깨칠 것인가를
잔잔한 물결처럼 나직히 일러주는 스님의 목소리…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8만 4천 법문이
꽃 한 송이에 갇힘을 보고

눈 푸른 납자(衲子)는 꿈 깨어
희열로 이말 쳤단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네 이마도 안 남으리

경암스님의 시는 간단하면서도
한구절 한구절이 깊이 음미하면
불교인식의 구경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짧은 인생을 길게사는
법을 관념적으로나마 알게된다.

— 장이두스님 발문 중에서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정가 10,000원〉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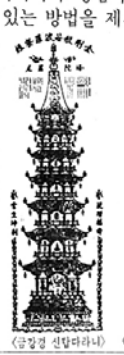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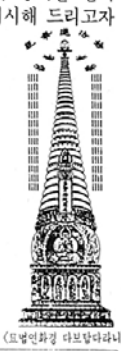
"100분의 스님을 모십니다"

①전국 100군데 시·군단위로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 한 분씩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②신비의 불탑다라니는 현재 각사암별로 스님들께서 스님 신도들에게만 보급하고 있아오나 100분의 스님들께는 지역내의 전불자들에게 불탑다라니의 영험과 공덕을 알리고, 큰 부담없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이 방법은 불사에도 도움이 되고, 신도포교에도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③전화주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내용을 검토하신후 여건이 합당하시다는 판단이 되시면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일자를 정하여 직접 찾아 뵙겠읍니다. 한 지역에 한 분 스님께만 정책적인 배려를 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계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장·악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전설된 기도와 방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본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현불뉴스

광주사암련 성도절 법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명스님)는 지난 16일 광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보성스님(송광사 전주지) 지선스님(백양사주지) 영조스님(증심사주지)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절 대법회를 개최했다.

한편 광주지역 스님들의 모임인 광주불교승보회(회장 벽상스님)와 광주불교장학회(이사장 강영선)는 지난 16일 지역 중·고·대학생 29명에게 8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포교대상에 천운스님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18일 불교회관에서 제8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시상식에서는 천운스님이 대상을, 김재영법사 정진스님(미8군 법우회 지도법사)이 공로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원력상에는 성법스님 김진택 최병수 정완석 정석준 심학섭씨, 가수 김흥국씨가 각각 수상했다.

승가원 올 예산 15억여원

사회복지복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지난 13일 중앙승가대학교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5억2천여만원에 대한 올해 운영예산을 심의, 승인했다. 또 정로센터 신설, 한가족 이벤트, 주간보호센터 순회재활센터 개소, 그룹홈 사업 등 승가원 신년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경북도 정각회 창립1돌

경북도의회 의원불자들로 구성된 경북도의회 정각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10일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대웅전에서 설조스님(불국사 주지) 이의근 경북도지사 주기돈회장 등 사부대중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주기돈회장은 "한생각 깨끗하면 정각(正覺)이고 한생각 맑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여 참나를 찾는다"며 "정각회불자들은 생활 속의 불교를 통하여 불국정토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라불교 초전지 학술조사

구미시는 한국교원대학 박물관(관장 정영호)과 5천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 96년 12월부터 97년 6월까지 신라불교 초전지역에 대한 유물유적 학술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학술조사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에 나타나있는 신라불교 초전기록에 입각하여 신라불교가 전래된 역사를 입증하고 초전지역의 유물유적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22일 강북불교협 신년법회

강북구 불교협의회(회장 동광)는 오는 22일 오전7시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을 위한 신년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동광(도선사 주지) 동훈(법종사 주지)스님을 비롯 장정식 강북구청장 김원길의원, 관세음합창단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종단마다 대형건축 불사

조계종 조계사 주변 4천여평부지 매입 회관 건립

태고종 천중복지관 40억투자 **천태종** 전통가람 불사 추진

조계 태고 천태종 등이 불교사에 길이 빛날 대형불사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기공될 각종단의 대형불사는 조계종의 불교종합회관, 태고종 재단법인 태고회의 천중복지회관, 천태종의 전통가람으로 한결같이 불교위상을 높이고 포교활성화를 기약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올해 불교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다. 84년부터 조계사가 사찰주변 4천여평을 매입한 이 터에 들어서게 될 불교종합회관에는 대법당과 종무기관 뿐아니라 신행단체 방송 언론기관이 들어서는 한국불교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이달말 건립추진위를 구성할 조계종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명실상부한 불교종합회관의 면모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태고종 재단법인 태고회(이사장 이규범)는 정릉 천중사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10층에 건평 1천5백평의 천중불교복지회관 건립을 최근 구청으로부터 허가받고 올해말까지 건립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청소년포교에 역점을 두고 마련되는 이 복지회관은 청소년독서실 불교도서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양로원 고아원의 시설도 검토중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최근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분당신도시 구미동 6천2백평부지에 한국전통가람의 표준형 사찰을 건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말 기공에 들어갈 예정인 이 사찰은 현재 설계에 들어갔으며 전통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노인이 노인 위문

정각노인대학(학장 안순진) 학생 300여명은 성도절을 기념하여 지난 14일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의 노인들과 함께 부채춤, 장고춤 등을 추고, 준비해간 과일과 음식을 나누는 등 모처럼만에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용인=고영배 기자〉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캠페인

고려대장경연구소 디지털화 팔만후원추진위 결성

2월11일부터 5월말까지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가 디지털 팔만대장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이란 범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하 장경연구소)는 "작년 12월 1차 입력을 끝낸 고려대장경이 문화·학술적으로 온전한 가치를 갖기위해 교정·검색프로그램·이체자 등 아직도 2년간의 추가작업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중앙일보와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장경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부대중의 후원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 1억5천여만원이 소요될 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장경연구소는 이미 '팔만후원회 모집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정치·경제·문화·종교계 등을 망라해 1백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는 월하스님(조계종 종정)이 증명법사를 맡았고 종단원로와 주지급 인사가 각각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포진해 있다. 前문화체육부 장관 이어령씨가 추진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려대장경 경판 전시회·디너쇼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기획됐다. 이중에서 삼성미술재단이 주관해 오는 5월9일부터 2주간 개최될 '고려대장경 경판 전시회'에서는 고려대장경 ·패엽경·티벳장경 등의 경판을 전시할 뿐만아니라 고려대장경 전산화 과정을 재현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부대중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한 단위 경전(1만원) 이상을 기부해야 하며 공·사 기업은 한 단위 경전(3백만원) 이상을 후원해야 한다.

종립스님은 "고려대장경은 역사의 전환기에 온 국민이 참여해 제작됐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고려대장경 역시 경판에서 탈피해 디지탈 고려대장경으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캠페인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오증욱 기자〉

조선초 '영산회상도' 발견

안동 봉정사대웅전 보수중… 학계 감정의뢰

조선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가 발견됐다.

지난 15일 안동 봉정사주지 법혜스님은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에 봉안되어 있는 후불탱화를 보수하기 위해 탱화를 벽에서 내리던 중 그 뒷벽에서 더 오래된 웅장한 벽화(영산회상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영상회상도를 살펴 본 김표영(중요무형문화재 102호)씨는 "미타탱화보다 먼저 제작되었으므로 약 4백여년 이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교미술사상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오는 1월25일까지 보수공사를 계속하는 봉정사측은 조만간 이 '영산회상도'를 학계 및 문화재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봉암사 인근 위락시설 철회 촉구

조계종, 환경부·건교부·문경시에 공문

조계종총무원(원장 월주)는 지난 16일 문경봉암사 근린지역 위락시설 조성계획과 관련,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북도 문경시에 공문을 보내 봉암사 인근 위락단지 조성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총무원은 공문에서 "봉암사는 조계종 종지를 이어가는 정신적 근간이 되는 참선수도도량"이라며 "위락단지가 조성될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문경시, 대한석탄공사는 은성탄광 폐광지인 문경읍 가은읍 일대 1백25만평에 10개의 위락단지 조성을 포함한 대규모 종합관광위락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봉암사 경내지에서 불과 3백미터 떨어진 가은읍 원북리 산56번지 일대 대한석탄공사 소유토지 44만7천평에 조성할 계획인 가은리조트단지는 3백43억원을 투입, 99년 완공할 계획으로 노인휴양촌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경기지사등 정부인사 월주스님 방문 잇달아

지난 10일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조계종총무원 방문에 이어 11일 조만후 정무차관, 15일 강현욱 환경부장관이 잇따라 월주 총무원장을 예방했다.

이인제 경기도지사는 노동법시국과 대선에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대해 월주 총무원장은 노동법 시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모색을 촉구했다. 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 대선에서의 중립입장을 밝혔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에게는 각지역의 개발에 따른 사찰환경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환경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강장관은 "봉암사와 해인사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17일 오전에는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총무원을 방문, 월주스님과 환담했다.

고침 지난 110호 15면 '서전원장 활동재개' 기사 가운데 "서 전원장은 중흥사 분원을 설치하고…"에서 22일 개원되는 중흥사 분원은 서 전원장과 관계없으며, 중흥사는 명도각스님이 주지임을 밝힙니다.

삼화사 붕괴 쌍용양회 미온태도 일관

대책위, 법적대응·대규모 규탄법회 밝혀

석회석 채굴로 인해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삼화사(주지 원행)가 해당사인 쌍용양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삼화사는 구랍 3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삼화사 법당 붕괴 및 사찰환경 보존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나 쌍용양회측은 구랍 24일 회신을 통해 "석회석광산 계발에 다단계공법을 도입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발파영향을 진단했다"고 전해왔다. 또한 쌍용양회측은 지난 9일 삼화사를 방문, 공문내용과 똑같은 의견만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삼화사측은 "오는 25일까지 법당붕괴조짐에 따른 정확한 복원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은 물론 대대적인 규탄법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양측간의 마찰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동국대 석림원 건립 자금 조계종 종회에 지원 청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비구기숙사 석림원건립을 추진해온 경주 석림회는 지난 6일 추진위를 결성 하고 학교내 부지마련에 따른 건립지원을 조계종 종회에 청원했다.

석림회는 학인스님들의 대중생활을 위해 경주 고불선원에서 마련해준 古家의 임대가 96년말로 완료됨에 따라 오갈데 없는 처지가 됐다며 조속한 시일내 수행관의 마련과 정각원옆에 마련한 부지에 석림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후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최초 인쇄국' 놓고 한·중 논란

중국이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세계최초 인쇄술 발명권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수립에 들어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고고학적인 증거와 학술적인 논거를 토대로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 수리과정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연대 △한국 목판인쇄의 기원연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세계 최초의 인쇄물이라는 3개 사항에 대해 유네스코에 정식 공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문물국과 북경시 문물국의 협조를 받아 구랍 26일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특별팀을 구성, 대책수립에 들어갔다.

마음 번뇌를 태우는 불

수행이라는 것은 마치 번뇌라는 이름의 장작더미를 태우기 위한 불쏘시개와 같다. 수행하겠다는 발심은 불붙은 장작이어서 큰 장작더미를 다 태울 수 있다. 보리심도 그와같아 마침내 모든 생각들을 다 없애고 마지막에는 깨달겠다는 생각까지 버워버리는 것이다. (한마음선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탕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파괴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가정용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질 배군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강퇴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日 2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요〉

〈2〉 미용효능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기 뽀얗게 됨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피부탄력유지 윤택뛰어난 피부 앗시지 효과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우두염등

〈1日10분~15분 얼굴피부찜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좌대〉

· 실용신안등록원 제96-23062호
· 의장등록출원 제96-16268호

● 규격 높이 27cm×직경 33cm
●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 상화약쑥 100일분 +황토가루 100일분 포함
●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좌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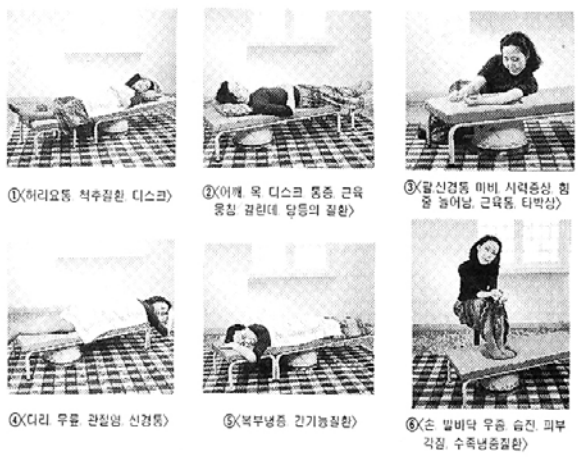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별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 「동의보감 탕액편권3」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신해경」 등의 옛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 황토가루와 약쑥을 염분(소금)과 함께 펄펄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쐬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아픈곳을 좌대위 구멍에 대고 찜질〉



①〈허리요통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통증 결림데 당등의 질환〉 ③〈갑신경통 미비 시력증상 힘줄 늘어남 근육통 타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냉증 간기능질환〉 ⑥〈손 발바닥 무좀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 : 553-0261~2 송 파 : 417-8922 강북 : 902-2430 종 로 : 747-7033 성북 : 942-6430 영등포 : 782-6080 반포 : 597-7581
경기지역 : 평택 : (0333)856-6856 분당 : (0347)66-0049 용인 : (0335)36-4294 과천 : (02)503-9352
부산(051) : 부산진구 : 803-0108 연제구 : 864-2900 해운대구 : 702-2621
대구(053) 남구 : 474-2828 달서구 : 635-9734
대전(042) 중구 : 222-4936 서 구 : 534-4211 동구 : 253-6446 둔 산 : 487-7245
경남지역 마산 : (0551)23-9016 김해 : (0525)24-4871 진주 : (0591)43-4655
울산 : (0522)74-7536 울산중구 : (0522)93-1973 울주구 : (0522)85-1284
경북지역 포항 : (0562)82-3155~6 안동 : (0571)53-0229
광주(062) 동구 : 228-8544 서구 : 523-1540
강원도 강릉 : (0391)645-2117
충남지역 공주 : (0416)856-6856 예산 : (0458)33-3208 서산 : (0455)63-0457 아산 : (0418)43-3510
충북지역 청 주 : (0431)273-2684 제 천 : (0443)46-3023
제주도(064) 제주시 : 22-3324

건강백세 ㊲

췌장 ②

'인슐린' 분비분전의 원인이 앞서 언급한 췌장조직의 불량으로 인한 것이어서 거의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와, 잘못된 식생활 태도나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후천적 당뇨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즉 인슐린 분비가 약간 부족하거나 과잉소모가 되어 일어나는 경우를 잘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인슐린의존형당뇨병', 후자는 '인슐린비의존형당뇨병' 또는 '당뇨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슐린의존형은 현재로서는 근본치료가 거의 어려우며 인슐린이 부족해지지 않게 적절한 양을 공급해주는 한계

가벼운 당뇨병이나 전형적인 당뇨증은 생활개선을 통한 췌장기능 강화와 운동으로 열량을 태워줌으로서 체내 인슐린이 절약되어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소갈병(消渴病) 조갈증(燥渴症)이라고 했으며 오늘날의 당뇨증을 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화나 음식공급에 절도를 잃거나 고량진미를 과식하며 호의호식하여 그 열이 혼증되어 피하에 남아서 생기기도 하며 과색으로 진액을 과소모하여 일어난다고 하여, 상중하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원리는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부족과 스트레스에 찾은 생활과 문란한 생활에서 유발될 수



지방과다섭취 인슐린 유입 방해원인
식생활 개선·규칙적운동 당뇨병 호전

적 대증요법이 수행되고 있고 비의존형의 경우는 음식조절과 꾸준한 운동 및 생활태도와 마음가짐의 개선으로 많이 호전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는 인슐린 병합 사용을 하되 호전되면 주사량을 감소 시켜 나가는 방법을 쓴다.

시중에서 당뇨병 완치 운운하는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당뇨병의 치료가 아닌 당뇨증상을 감소시켜 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완치가 되었다면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좋아지고 일반인처럼 식사를 하여도 전혀 악화되지 않고 인슐린 분비가 완활해야 할것이나 이런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고 본다. 혈당을 강하시켜주는 한약재나 민간약재는 많이 개발되어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경우 특수한 경혈을 자극시키면 혈당강하가 일어난다. 그것은 췌장에 자극이 가서 인슐린 분비가 도움이 되어 일시적으로 호전이 되고 가벼운 경우는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성된 분비조직이 재생 되지 않는 한 완치라고는 볼수 없으며 대증 요법이나 당뇨증의 개선인 것이다.

있다는 현대의학의 설명과도 일치되는 점이 많다. 과거 일부 지배계급이나 부유층의 무절제한 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어 '부자병', '문화병', '현대병'등으로 지칭되던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들이다. 현대의학은 당뇨의 악화인자로 지방의 과섭취로 꼽고 있다. 지방은 세포를 둘러싸게되어 당분을 함유한 세포로의 인슐린 유입을 방해하므로 설령 인슐린공급을 늘려도 혈당은 여전히 증가된다는 실험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분을 많이 섭취한 후 운동이 부족되면 혈중지방이 상승되고 담즙, 췌액 등으로도 다 처리를 못 해주므로 분비된 인슐린 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른해지며 당뇨증을 악화 시킨다는 것이다. 충분히 수긍이 간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 코를 통해 호스를 넣어 처리해주는 고통도 문제이지만 당뇨병을 걱정해야하는 일이 더 큰것 같다. 적당히 먹고 운동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지혜를 한번 더 강조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새싹들에게 주는 약 ②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그림 · 이준석

삼천배 마친날 밤 부처님을 뵈었고
환부는 기적처럼 뽀송뽀송 해졌다
퇴원후 365일 부처님 품에서…

만 24시간을 늪에 빠진 듯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 세 시쯤 되었을까. 선명한 총천연색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절하던 봉은사였습니다.

절을 했던 몇 천명의 신도들이 모두 모여 호계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법당 안 부처님의 옆이 마치 지퍼를 내린 듯이 갈라지면서 남자 몸으로 부처님이 화현하시어 동쪽 문으로 나오시더니 법당 뒤를 돌아 카 퍼레이드를 하시면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먼발치에 있던 저는 앞으로 다가가 수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차는 멈추어졌고(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차에서 내리셔서 제 앞에 마주 서시더니 어깨 앞·뒤 수술한 자리 세 곳을 손으로 꾹꾹 세번씩 눌러 주시면서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느낌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조금만 더 먹어라"하심을 느낌으로 느끼면서 깜짝놀라 눈을 떴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깨고 싶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유서 비슷하게 쓰는 버릇이 있는 공책을 펴고 펜을 들며 다시 엎드렸습니다. 꿈을 다시 꾸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역시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똑같은 느낌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조금만 더 먹어라." 엎드린 채 노트에 이 말씀을 써 놓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던 남편이 수술 자리에 소독을 하고 거즈를 갈아붙여 주려고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서 꿈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려고 부처님 가피를 입어 곧 나을 것이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같이 삼천배 하자고 인도했던 친구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는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래도 전생에 많이 닦았나 보다. 어떻게 삼천배 단 한번에 가피를 받았니." 좋아하며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아침 · 저녁으로 소독을 하고 거즈를 갈아 붙여 주는 것이 일과로 되어 있는 남편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소독을 하려고 거즈를 때는 순간 그렇게도 질척거리며 나오던 고름이 뽀송뽀송한 채 조금만 묻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기적이야! 인제 다 나아서 막혔나봐?" 신이 나서 소독을 하고 거즈를 붙여 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다시 소독할 저녁 시간. 이게 웬일인가? 인제 고름 같은 건 찾아 볼 수 없이 아물어 버렸습니다.

몇 달 후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결핵약을 끊어도 좋다는 허락이 났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과로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시며 매년 술 한 병씩 사가지고 와서 간강한 모습만 한번씩 보여주면 된다고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의사선생님, 간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병원의 이곳 저곳을 살펴보며 병실에 남아 있는 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모두 빨리 완쾌하여 퇴원하길 빌었다. "나는 환자라는 생각을 버리세요"하시던 의사 선생님의 음성을 되새기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몇년동안 시들어 보였던 나뭇잎들이 싱그러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친구들을 따라 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사에 아침에 출근해서 사시 불공, 2시 예불, 각 신행단체 법회, 저녁 예불등 모든 기도에 매일 참석을 하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불교가 가장 합리적이고 대단히 훌륭한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종교라는 것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외울 수 있을것 같던 천수경도 외웠고, 각종 다라니들도 외우면서 각 단체 법회에 당당하게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부처님께서는 법당 안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지식들을 도반으로 인연지어 주시어 동참 기도와 방생기도 경읽기등 일년 삼백육십오일 하루 한 시 부처님을 떠나서는 살지 않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영자
〈서울 강북구 수유 5동〉



◇중광스님 作 '연꽃'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 作 '招財進寶'

고승대덕초청 禪 서화전

불교TV 주최, 23일~30일 세종문화회관

불교TV이 지난해 연말 성황리에 개최한 부산 선서화전의 열기를 이어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서울 전시를 갖는다.

8일간에 걸쳐 전시되는 이번 행사에는 근세기 최고의 수행력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의 서화와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의 수월관음도,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이 직접 만든 도자기작품을 비롯해 불교관화가 황남채씨, 목아박물관 관장 박찬수 씨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등 총 8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불교 사상과 문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격조 높은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불교TV 영상포교 발전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이은자 기자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 간 : 96. 11. 1 ~ 97.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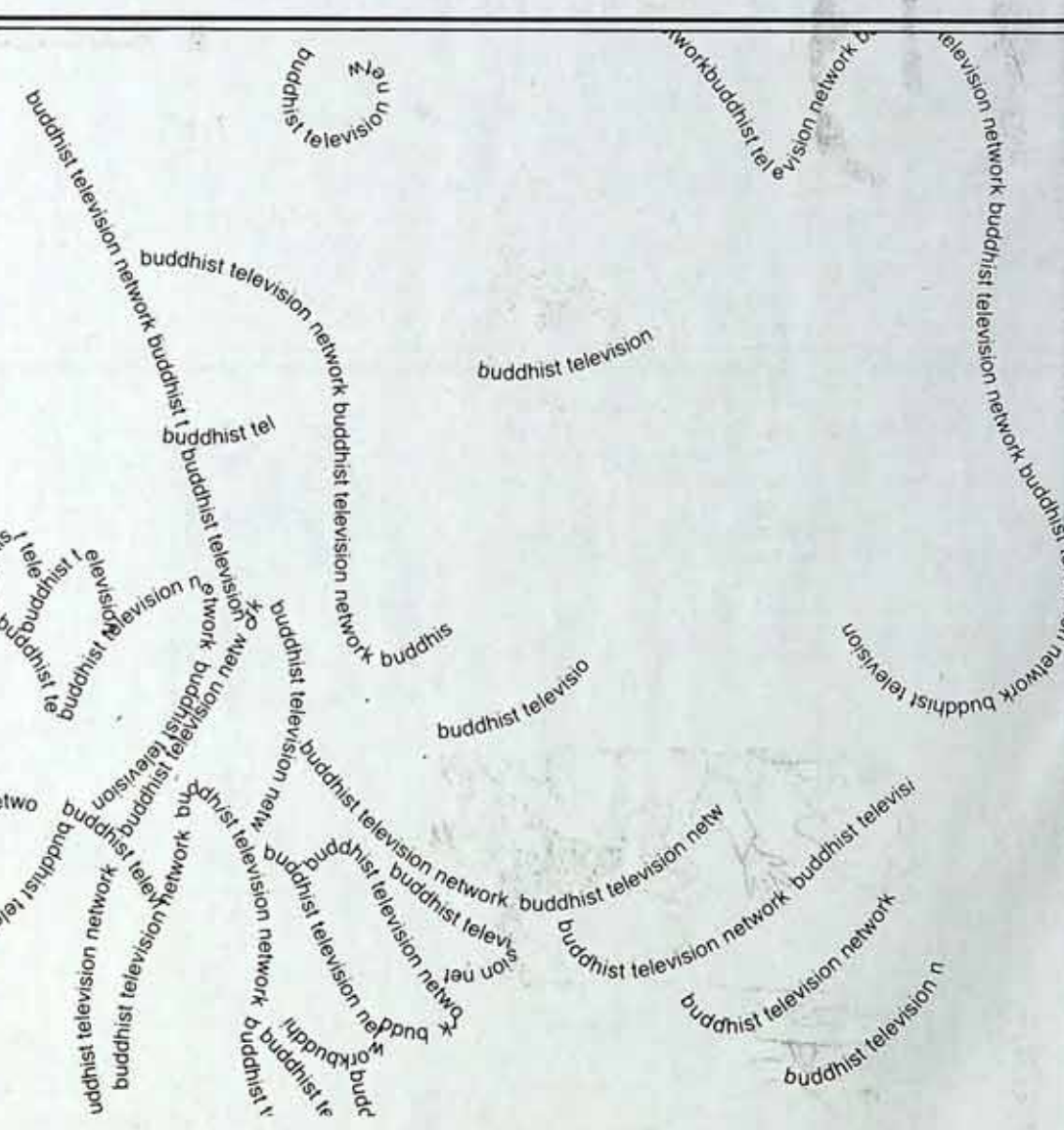
■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등 참고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케이블TV 설치 문의처

■ 서울지역 강남케이블TV 강남구 518-2000 강동케이블TV 강동구 472-115 강서케이블TV 강서구 2663-1414 구로케이블TV 구로 공단구 830-8300 금천케이블TV 금천구 877-5000 노원케이블TV 노원구 934-2366 동대문전철방송 동대문구 215-0114 동작케이블TV 동작구 833-2121 동서울케이블TV 성동 광진구 458-6000 동작케이블TV 동작구 824-8080 서울케이블TV 마포구 717-1125 서대케이블TV 도봉 강북구 999-5555 서초케이블TV 서초구 365-0101 서초케이블TV 서초구 529-8952 송파케이블TV 송파구 418-2700 양천케이블TV 양천구 645-2222 영등포케이블TV 영등포구 634-3200 한국통신케이블TV 양천구 645-2222 **부산지역** 금정케이블TV 금정구 515-6140 남동케이블TV 감서 사상 북구 326-9112~6 동남케이블TV 남 수영구 620-5000 범천케이블네트워크 부산진구 640-8585 부산케이블TV 동래 연제구 555-0300 서부산케이블TV 서 사하구 293-0300 동부산종합유선방송 중 동 영도구 412-0666 해운대케이블TV 해운대구 746-1222 **대구지역** 금호케이블TV 북구 953-4200 동구케이블방송 동구 985-7777 대구케이블네트워크 남구 656-5555 서대구케이블TV 서구 567-6000 수성케이블방송 수성구 768-8888 우방방송 달서구 551-2000 **인천지역** 남동케이블TV 남동구 422-6757~9 남부종합유선방송 인주 남구 875-0307 북부종합케이블TV 부평 북갑구 501-9300 서인천케이블TV 서구 582-3211~4 서해종합유선방송 중 동구 761-8888 **광주지역** 광주케이블네트워크 북 북구 512-4433 광주케이블TV 대표회사 남 광산구 370-5700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 대덕 동구 673-3322 한빛케이블TV 중 서 유성구 222-8950~1 **기타지역** 수원방송국 수원 257-4011~5 한국정보케이블TV 충천서 울천 일동 복천 안구군 242-213(~3 청주종합유선방송 청주시 청원군 271-3000 천안케이블TV 천안시 천안군 551-9991~5 전주케이블TV 전주시 완주군 250-6500 서남방송 목포시 신안 무안군 76-7777 강북케이블TV 강릉시 울릉 강릉군 251-7777 경남케이블TV 창원 진해시 김해 6000~4 제주케이블TV 제주시 북제주군 41-7777